제3편
수난 속에 뿌리내린 삼육교육

(1931-1949, 조선합회신학교 시대)

제1장 조선합회신학교
(1931~1932)

1917년부터 의명학교에서 병설 운영되었던 신학교가 1931년 4월에 서울로 옮겨져 조선합회신학교란 명칭으로 재개되었다는 사실은 전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특별히 신학교의 서울 이전으로 재림교회의 중심이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지고, 그것이 결국 의명학교를 순안 지역민들에게 양도하게 되는 역사적 운명으로 이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삼육대학교의 전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결과론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의명학교가 있었던 순안은 해방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북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자연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만약에 남한 지역에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을 세우지 못했더라면 한국 재림교회는 불가불 분단 이후에 남한 지역에서 새로운 중등교육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신학교의 서울 이전으로 남한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사업이 전개하였고, 그와 더불어 중등교육 기관을 남한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분단 이후의 남한 교육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재림교회는 조선합회신학교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서울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제 조선합회신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재림교회가 신학교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다른 기독교회들에서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재림교회가 추진했던 신학교 운영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1. 한국의 신학교들

재림교회 내 지도자 양성학교의 개념으로 시작된 의명학교와 그 학교 내에 병설된 신학교, 그리고 서울로 이전한 조선합회신학교에 이르기까지 한국 재림교회는 선교의 시작부터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이 학교가 배출한 본방인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재림교회는 초기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림교회의 선교와 교육 사업의 유기적인 발전은 한국에 정착한 여타의 개신교회의 교육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림교회의 조선합회신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 개신교에서 추진했던 신학교 운영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감리교회 신학교

1885년에 애픈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목사와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박사에 의해 시작된 한국 장로교회는 이들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1885)과 이화학당(1886)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근대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들 근대식 학교에서는 한문, 영어, 천문, 지리, 생리, 수학 등과 같은 일반 과목 외에 성경, 찬송가 등의 종교과목들을 함께 가르쳤다.[1] 그러나 이러한 정규학교 과정만으로는 감리교회가 추구하던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회자 양성교육의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사역자 양성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년 후인 1887년에 미감리교 한국선교회(미감리회)는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사들의 주도 하에 신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감리교회 신학교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893년에 이르러 감리교회 교단 본부는 제9차 연회(미감리회 한국선교회 제9차 연회, 1893년 8월 31일~9월8일)를 통해 배재학당 내에 신학부를 설립하고 교장인 애픈젤러 목사에게 신학부장을 역임케 함으로써 신학교를 정식으로 병설 운영하기 시작했다.[2]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수가 증가하고 전문신학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감리교회 선교를 주도하던 미감리회 선교부는 전문적인 한국인 목사 양성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마침내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인 1905년에 일반신학당(General Theological School)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에 미감리회 여선교부에서도 여성교육자 양성기관으로 여성성경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남녀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신학교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감리회 선교부보다 10여 년 늦게 한국에 들어온 미 남감리회 선교부도 1898년에 서울에 배화학당을 설립하면서 선교와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3] 그러나 하나의 감리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선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남북 감리회 선교부는 한국에서만큼은 하나로 통합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었다. 그 결과 1905년에 남북감리교회는 합동하여 '협성신학교'를 세우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

---

[1]장종철, "한국 감리교회의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논총 5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43.

[2]이때, 신학반의 학생은 3-5명, 교수는 아펜젤러, 정규과목은 창세기와 로마서 및 [미이미교회 강례]이며, 4년 과정의 '본처 전도사' 교육과정을 확정하였다.

[3]미국 감리교회는 1771년 8월 애스베리(Francis Asbury)에 의해 개척되어 미국 전역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 '흑인노예의 해방문제'로 대립하다가 1846년 5월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 분리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한국 감리교회 선교 역시 북감리회 선교부와 남감리회 선교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Gordon P. Baker, *Those Incredible Methodists: A History of the Baltimore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altimore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Baltimore Conference, 1972), 29-31.

학교육에 박차를 가했다.[1] 5년 후인 1910년에 협성신학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에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신학교 사업을 진행했으며, 1925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번지에서 운영해 오던 협성여자신학교와 합동하여 남녀신학교로 운영되었다. 그 후 1931년 12월에 교명을 감리교회신학대학으로 개칭하고 전문학교령에 준하여 4년제 남녀공학을 실시함으로써 감리교회 신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감리교회 신학교의 발전의 흐름은 재림교회의 신학교 발전의 흐름과 유사한 역사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 장로교회 신학교

장로교회는 그 교파가 다분화되어 있어 단일한 신학교의 역사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2] 그러나 대부분의 장로교회 신학교들이 그 역사적 기원을 평양신학교에 두고 있어 우리는 평양신학교의 역사를 통해 초기 장로교회의 신학교 역사를 일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양신학교는 1901년에 모펫(Samuel A. Moffett, 馬布三悅)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술된다.[3] 모펫 선교사는 넓은 정원이 있고 한국식 기와를 얹은 서양식 건물인 자신의 사택(평양 대동문 술막골)을 신학교로 개방하여 조선인 사역자 양성과정을 시작하였다. 이때 등록한 신학생은 방기창과 김종섭 두 사람이었고, 교수진도 모펫과 그레이엄 리(Graham Lee, 李吉咸) 두 사람뿐이었다.[4] 평양신학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학교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역자 양성을 위한 과정들이 역시 진행되고 있었다.

장로교회의 교육 사업은 앨런의 제중원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 후 언더우드의 입국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885년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는 이듬해인 1886년에 경신학교를 설립하여 성경을 포함한 신학문을 가르쳤다. 이 시설은 원래 고아원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사실상은 학교였다.[5] 이곳에서 영어와 성경과 한문 등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이 고아원 학교는 1891년에는 언더우드의 귀국으로 모펫 선교사에 의해 운영되었고, 1894년에는 밀러(F. S. Miller) 목사가 운영을 맡으면서

1양주삼, 조선남감리교회30년기념보(1930): 26.

2이런 교단적 분화로 인해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에서도 장로교회의 기독교교육사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기장총회 등 4개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기독교교육 논총 5, 10. 참조.

3장로교회의 역사 속에서 평양신학교의 정확한 설립 연대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다. 클락(Charles Allen Clark, 郭安連)과 언더우드는 1902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Charles Allen Clark, "Theological Seminary," *KFM* (October 1909), 175.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220. 그러나 모펫의 기록 등에 의해 작성된 학교 요람에는 1901년으로 되어 있다. 총신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총신대학교100년사(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3), 140, 141.

4상게서, 140.

5이광린, 43.

학교로서의 체제와 기구를 갖추게 된다. 밀러 목사는 이 학교를 '예수교학당' 혹은 '구세학당'(救世學堂)으로 명명한 후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05년에 학교의 이름을 경신으로 고쳐 부르면서 경신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 역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적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사와 교사의 양성에 두고" 있었다.[1] 실제로 이곳에서 교육받은 많은 인재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경신학교의 전신인 고아원을 운영하던 초기에 언더우드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뜻을 가졌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해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다. 대신에 1890년도부터 사경회의 일환으로 신학반(theological class)을 운영하면서 신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신학반을 가르치던 선생은 언더우드, 기포드, 헤론이었고, 백홍준, 서경조, 최명오, 서상륜, 정공빈, 홍정후 등이 학생으로 참석하였다. 이 모임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채필근 목사는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첫 출발'이었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다.[2] 이 신학반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사경회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의 전신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평양신학교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장로교회에서 전도사의 길을 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경회를 통한 교회 지도자 육성 방식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데는 시의적절한 역할을 했지만 전문 목회자 육성을 위해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신학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했다.[3] 이에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통한 사역자 양성을 위해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장로교회가 한국 내에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국 선교본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모펫 선교사는 1900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락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금도 요청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선교본부에서는 신학교 설립을 허락하고 기금 송달을 약속함으로써 평양공의회에서 의뢰한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육(theological training)을 허락하였다.[4] 이렇게 해서 모펫 선교사는 서울에서 진행해오던 '신학반'을 정규 신학교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1900년 가을에 평양공의회를 열고 목사 후보생을 선정하여 평양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5] 이 결의에 따라 1901년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 방기창, 김종섭을 목사 후보생으로 선정

---

[1]경신80년약사-창립 80주년 기념출판물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1966), 34, 35.

[2]채필근, 한국기독교개척자 한석진과 그 시대(서울: 기독교서회, 1971), 117, 118.

[3]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137.

[4]Samuel A. Moffett, ed., *Catalogue of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t Pyeng Yang, Chosen*, 1916, 9; 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141, 142.

[5]계일승, 마포삼열 박사 전기(서울: 총회교육부, 1973), 118.

하고, 그해 가을에 신학과정위원을 선정하여 신학 예비과목들을 결정하고 정식으로 가르침으로써 평양신학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1902년에는 신학교 과정을 5년 과정으로 채택하고 집중적 방식으로 5년간의 신학교육을 추진하였다. 그 후 신학교육위원회는 1903년 봄에 신학 제1학년을 3개월간 가르침으로써 평양신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하기에 이르렀다.[1] 이렇게 해서 시작된 평양신학교의 첫 졸업생은 1907년 6월 20일에 배출되었는데, 길선주 등 7명이 1회 졸업생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해에 평양신학교는 '조선장로회 신학교'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신학교로서의 틀을 다지게 되었다.[2] 처음에 모펫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시작했던 평양신학교는 1908년 맥코믹(Carol McCormick) 여사의 헌금으로 평양시 하수구리 언덕에 있는 5,000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학생수의 증가로 교사(校舍)가 협소해지자 1921년 미화 5,500달러의 헌금으로 경창리에 새 교사를 지어 안정적인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운영하였다.[3] 이렇게 한국장로교회의 신학교로서 중심 역할을 하던 평양신학교는 1938년 신사참배 문제 이후 남북장로교회 선교회의 조선예수교장로회 탈퇴와 함께 폐교하기까지 약 38년 동안 장로교회 신학교의 역할을 다하고 이후의 역사를 총회신학교, 조선신학교, 장로교신학교, 고려신학교 등에 넘겨주게 된다. 이상의 역사를 볼 때 장로교회 신학교의 초기 역사도 경신학교에서의 사역자 양성 기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경회 형태의 신학반으로, 궁극적으로는 평양신학교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3) 성결교회회 신학교

성결교회는 재림교회에 이어 5번째로 한국에 복음을 전한 개신교단이다. 이들은 1907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첫 복음사업을 시작하여 1949년 그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회'로 바꾸었다. 성결교회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도표제로 내세워 한국에서의 구령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결교회가 신학교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11년 3월이었다. 1910년 11월 영국인으로서 한국에 내한한 존 토머스(John Thomas) 목사는 이듬해 경성에 성서학원을 설립해 교육사역을 통한 성결교회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4]

성결교회의 역사에서 성서학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관이었다. 한국에서 성결교회는 원래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 약어로 OMS)란 이름으로

---

[1]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145.
[2]장로교회신학교 요람, 1916, 6.
[3]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95.
[4]박명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역사와 특징," 성결교회와 신학, 제5호(2001): 67, 68.

전래되었다. 동양선교회는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성결 -오순절 운동(holiness-pentecostal movement)의 영향으로 20세기 초에 발전한 급진적인 성결운동(radical holiness movement)에 속한 단체로 1910년 찰스 카우먼(Charles E. Cowma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1] 카우먼 부부는 1901년 2월에 일본에 동경성서학원을 세워 4중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결운동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역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1907년에 한국인에게도 이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해 5월에 김상준과 정빈은 카우먼이 운영하던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자신들의 스승인 카우먼, 길보른(E. A. Kilbourne)과 함께 서울의 염곡에 복음전도관(Gospel Mission Hall)을 세우고 한국 선교사업을 추진하였다.[2] 이들은 처음에는 특정 교파를 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신앙선교단체로서만 활동하기 위해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동양선교회의 주관으로 영국의 성결단체인 스타 홀(Star Hall)의 일원이었던 토머스 목사가 선교사로 내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을 갖춘 선교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때 토머스 목사가 한국에 입국하여 세운 것이 성서학원이었다. 복음전도관이 세워질 당시부터 성서반은 운영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성서학원을 시작한 것은 1911년 3월이었다. 이 기관의 원장은 토마스 목사였는데, 처음에는 무교정전도관에서 함께 시작하였다가 1912년에 죽첨정 3정목(현 아현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성성서학원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었고 이론적인 신학보다는 실천적인 전도자훈련에 강조점을 둔 것이 특색이었다.[3]

경성성서학원은 복음전도관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교의 역량을 강화했음은 물론이고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한국 사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912년에는 교인수가 1,180명[4]에 이르는 등 교세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체계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21년에 세계 성결운동의 흐름에 따라 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 대신 성결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파를 조직하였다.[5] 교회의 발전은 곧 교육기관의 발전으로 이어지듯이 경성성서학원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결국 1940년 5월에 성서학원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경성신학교 시대를 열게 된다. 그해 11월 성결교회는 정식으로 경성신학교를 개교하여 본격적인 신학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성신학교는 1943년 일제에 의한 교단 해산과 더불

1윌리엄 코스틀레비(William Kostlevy), "마틴 웰즈, 냅, 찰스 카우만, 그리고 동양선교회의 기원," 배덕만 역, 성결교회와 신학 제4호(2000): 122.

2박명수, 67.

3상게서, 68.

4조선총독부 통계연감, 1912.

5박명수, 69.

어 폐교하게 되지만 해방과 더불어 다시 문을 열어 서울신학교란 이름으로 신학교육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1945년 11월).

4) 침례교회 신학교

침례교회의 존재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06년 대한기독교회(大韓基督敎會)가 조직되면서 부터이다. 이 교단은 1889년에 독립선교사로 내한한 펜윅(Malcolm C. Fenwick)이 1895년에 한국에 들어온 엘라 씽 기념선교회(Ella Thing Memorial Mission)를 인수한 후 조직된 단체로 1921년부터 일제 말기까지는 동아기독교(東亞基督敎)란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 침례교회가 된다.[1]

침례교회의 신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1954년에 침례회 신학교가 설립 인가를 얻고 난 후부터로 소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에서의 선교사업을 위해 성경학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침례교회에서 교육사업의 효시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897년 펜윅이 운영하던 성경공부방(Bible Room)이나 그 후 원산에 세워진 성경학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와 신학문 등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된 근대식 교육의 형태로 시작된 것은 1905년 공주 성경학원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펜윅의 신임을 얻어 충청도 공주에서 엘라 씽 기념선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신명균은 일어학원과 군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교육사업의 필요를 느껴 자신이 활동하던 공주에 성경학원을 세우고 초대 원장에 취임하였다.[2] 신명균은 학생들을 육체적, 영적, 실제적인 교훈에 따라 교육하여 성경학원이 근대교육의 장이 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성경학원에서 공부하여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 후보자가 되어 해당 구역의 성도들의 성경 교육을 담당하고 새 신자들을 훈련하며 입교자들을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3]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주의 성경학원은 사역자 양성학교에 준하는 프로그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의해 교육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대한기독교회(혹은 동아기독교)의 교회 분위기는 세속적인 교육에 대한 반교육적 정서가 강하였던 것으로 교단 역사가들은 지적한다. 그러한 역사적인 실례로 1926년 점촌교회에서 열린 제21차 대화회에서 펜윅이 학교교육 폐지령을 내린 사건들을 들 수 있다.[4] 이 결정에 따라 교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반교육정책의 폐해도 일부 나타났다.

일제 말엽 타 기독교단들처럼 동아기독교도 일제의 기독교 탄압의 일환에 의해

1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 1964, 15.
2이석철, "한국기독교침례회의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 논총 5, 277.
3허긴, "한국의 침례교회사(7)," 뱁티스트 제19호(1995. 5. 6): 50-52.
4이석철, 282.

1944년 5월 10일 해산되고 만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46년 제26차 대화회에서 "총회"를 구성하고, 2년 후인 1948년에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미국의 남침례회와 제의한 후 "침례교"라는 정식 교단 명칭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침례교회 사업을 개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단의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954년 신학교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침례교회의 신학교 운영은 다른 교단들의 신학교 발전 역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조선합회신학교(1931)

청소년 양성학교로부터 의명학교 내 신학교로, 그리고 다시 서울의 조선합회신학교에 이르기까지 재림교회의 신학교 운영 상황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성결교회와 침례교회가 성서학원에서부터 신학교로 변화된 것과는 달리 재림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신학교 시스템과 같이 근대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전문 신학교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추이에 따라서 볼 때 신학교의 서울 이전으로 인한 조선합회신학교의 운영은 재림교회 신학교육이 정규 교육기관의 부설로 운영되다가 전문적인 신학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조선합회신학교의 독립 운영은 재림교회 교육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1) 조선합회신학교 운영

1931년에 개최된 제7회 조선합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로 이전한 조선합회신학교는 회기리에 위치한 본부교회 예배당 동편 날개 방에서 역사적인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1931년 4월 6일 학교 이전과 더불어 서울로 올라온 12명의 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남은 1년간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었다.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신학교를 이전한 후 신학교육을 위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고교사들을 확보하였다. 우선 당시 조선합회의 합회장인 오버그 목사가 신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고, 교감에는 클린턴 리 목사, 교수에는 오버그와 클린턴 리 외에 합회 회계인 길리스(I. E. Gillis, 吉利秀)와 클린턴 리 목사의 부인인 그레이스 리(Grace Lee, 李恩愛)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합회장으로서 신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게 된 오버그 목사는 스미스, 러셀, 스캇, 버터필드에 이어 한국에 입국한 다섯 번째 선교사였다. 그는 오리곤 주(州) 출신으로 왈라왈라 대학 신학과에 재학 중이던 1909년 10월에 한국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고 내한하여 조선미션의 회계로 첫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1] 6년 후인 1915년에 상해에

[1] *Review and Herald*, January 13, 1910, 11; 이영린, 42.

서 개최된 지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17년 개최된 조선합회 조직 총회에서 합회장 버터필드 목사와 함께 부회장에 피선되어 합회 내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1] 이후 1919년에는 남선미션장, 1921년에는 서선대회장이 되었다가, 192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0회 대총회에서 버터필드 목사가 미국의 한 합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 된 조선합회의 합회장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2] 한국 재림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봉사하던 오버그 목사는 1925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 어쿼하트(E. J. Urquhart, 禹國華)가 합회장 서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3년 후인 1928년에 다시 내한하여 1939년 일본연합회로 전근되기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남겼다[3]. 그가 조선합회신학교의 교장을 겸임하게 된 것은 바로 합회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신학교가 서울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었다.

2) 전도 실습

신학교가 순안에서 의명학교의 병설로 운영될 때, 신학과 학생들은 입학 전에 권서(문서선교)사업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했고, 나중에 졸업 전 전도활동에 참여해야만 졸업이 가능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당시 졸업반 학생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실습 교육의 일환으로 전도회 활동을 해야했다. 그러나 신학교가 서울로 옮겨지고 난 후 학생들은 전도 실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대도시여서 선교의 대상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이미 재림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클린턴 리 목사는 "경성지방은 신학생들의 실험장과 같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4] 교단의 적극적인 선교의지와 신학생들에 대한 선교실습의 필요가 부합해 조선합회신학교는 서울에서 열리자마자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우선 신학교의 서울 이전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시작하면서, 신학교 학생들은 신학교가 위치한 회기리의 신축예배당에서 전도회를 개최하였다. 신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클린턴 리 목사는 회기리교회(현 본부교회) 장로들과 협의하여 전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1931년 5월 3일부터 신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2개월 동안 집중적인 전도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교회 소식지에는 당시의 특별대전도회가 신학교 주최로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회의 강사는 신학교의 주 책임자인 클린턴 리 목사와 이성의 목사가 전담하였으며, 신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

[1]이영린, 49.
[2]이영린, 52, 53; 유영순, 101.
[3]*Review and Herald*, September 20, 1928, 24; 교회지남, 1928년 11월호, 24, 25, 32.
[4]클린턴 리, "경성전도운동, 신학생들의 1년간 활동," 교회지남, 1932년 8월호, 5.

매일 밤 4, 5백 명씩 참여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1] 이 전도회는 새로 지은 본부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기인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신학교 학생들의 전도 훈련을 위해서도 매우 요긴한 프로그램이었다. 일명 전도실습 과정을 운영한 것이었다. 당시 회기리 교회는 화재 후 다시 재건되어 커다란 예배당은 물론 신학교 교실 등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재림교회 본부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제 이 위상에 걸맞게 많은 신자들이 예배당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적 대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교 활동이 추진되어야 했다. 조선합회신학교가 바아흐로 그 시대적 대의에 함께 동참한 것이었다.

회기리에서의 1개월 전도회가 마친 후 신학교 학생들은 그해 여름 또다시 전도활동에 나섰다. 특별히 당시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의 청진동으로 전임한 박기창 전도사와 더불어 서울시 내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도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박기창 전도사와 신학생들은 시외 지역인 공덕리, 신당리, 면목리 등 3곳에서 전도회를 개최하였다. 공덕리에서는 박기창 전도사의 도움으로 오형필, 정태규 등 3명이 전도회를 진행하였으며, 신당리에서는 이여식, 방례두, 이봉찬, 배상련 등 4명이, 면목리에서는 중선대회의 임원들과 함께 이명준, 오영섭, 강진하 등 3명이 전도회를 실시했는데, 장장 1개월 반 동안 진행되었다.[2]

이 전도회는 원동지회장인 그릭스(Ferederick Griggs) 목사를 초청하여 개최하게 될 서울 대전도회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지역 전도회였다. 그릭스 목사는 1930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제42회 대총회에서 에번스(I. H. Evans) 목사의 뒤를 이어 원동지회장에 선출된 인물이었다. 그는 지회장이 되자마자 전소된 조선합회 본부의 재건을 도왔으며, 지회 본부를 중국 상해에서 홍콩으로 이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3] 조선합회 지도자들은 그릭스 목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최초로 열리게 되는 서울 대전도회에 그를 강사로 초청한 후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서울 시외에서 전도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그릭스 목사를 초청한 대 전도회가 서울 장곡천 공회당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전도회의 규모와 영향은 이여식 목사의 다음과 같은 기록 속에 남겨져 있다.

> 서울에서 안식일 재림교회를 선전하기 위하여 장곡천 공회당을 사용하면서 40일 간의 장기 전도회를 열고, 신학생들은 반편성을 하여 구도자를 방문하는

---

[1]교회지남, 1931년 6월호, 27.
[2]교회지남, 1932년 8월호, 5.
[3]교회지남, 1931년 5월호, 16, 17; 이영린, 63.

활동을 하였는데 …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개종하여 참으로 효과 있는 전도회였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기초 삼아, 서울을 중심한 근교에서 천막 전도회를 가짐으로 교실에서 배운 전도법을 실천하기도 했다.[1]

이 전도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진행해 왔던 선교정책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도회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장막전도회의 틀을 깨고 대도시에서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한 종합전도회란 측면에서 특별한 것이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도회는 한국 재림교회가 행한 첫 번째 대전도회였다. 한국의 중심 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당시 아시아 지역의 총괄책임을 맡은 지회장을 강사로 모시고 이성의 목사의 통역으로 전도회가 진행되었다. 이 전도회를 위해 한국 재림교회는 선교, 의료, 출판 및 교육 사업 전 분야의 인력들을 동원했다. 신학교 학생들은 그들 중에서도 선교의 최일선에서 전도회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들은 선교 실습의 일환으로 전도회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현대진리"라는 제목을 붙인 전도지를 서울 시내 전역에 배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2]

아울러 그릭스 목사의 전도회가 마쳐진 이후에는 일주일에 4회씩 밤마다 전도회 참석했던 사람들을 청진동교회 및 시외 곳곳에 모아 놓고 성경연구회를 진행하였다. 청진동에서는 조선합회신학교 교감인 클린턴 리 목사가 성경연구회를 인도하였으며, 공덕리에서는 오형필, 신당리에서는 이여식, 면목리에서는 우필원 등 신학교 학생들이 직접 성경연구회를 개최하여 성경을 교수하였다. 이러한 전도의 열기는 이듬해에도 계속되었다. 1932년 봄에 혜화동과 창신동에서 선교 실습을 겸한 전도 활동이 이어졌다. 일제가 그 위상을 격하시켜 버리기 위해 궁내에 동물원을 설치하고 놀이시설로 삼았던 창경원(창경궁) 북쪽에 있던 혜화동에서는 김정호, 배상련, 정태규 등 3명의 신학생이 선교활동을 벌였고, 홍인문의 북쪽인 창신동에서는 손재숙, 방례두, 이면득, 배혜경 등 4명의 신학생들이 선교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약 1년 여에 걸쳐서 선교실습 및 전도회가 지속되는 동안 4번의 침례식이 있었는데, 이 때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로 입교한 사람들은 [표13]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총 69명에 이르렀다.[3]

[표 13] 1931~2년 전도회의 수침자 결과

		청진동	공덕리	신당리	면목리	회기리	계
1931. 09. 19	남						
	여	4	2				6
1931. 12. 19	남	4	1	1	3	5	14

[1]이여식, "나의 자전,"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서울: 시조사, 1988), 297.
[2]클린턴 리, "경성전도운동," 교회지남, 1932년 8월호, 5, 6.
[3]상게서

	여		3	3	3	12	21
1932. 04. 09	남	5	1	2	1		9
	여	4			3		7
1932. 06. 19	남					1	1
	여	3	1			7	11
계	남	9	2	3	4	6	24
	여	11	6	3	6	19	45
총 계		20	8	6	10	25	69

3) 신학교 제7회 졸업식(1932)

1930년 6월부터 12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제7기 신학교는 1931년 4월 서울로의 이전을 경험하고, 이듬해인 1932년 6월 27일에 졸업식을 맞게 된다. 원래 12명으로 시작된 신학교는 서울로 옮겨 조선합회신학교로 운영하면서 6명이 추가로 입학해 총 18명(남자부 11명, 여자부 7명)이 공부하였는데 이들이 제7회 졸업생의 영예를 얻었다.[1]

졸업식은 합회 본부 예배당에서 거행되었다. 우선 졸업식이 있기 전인 6월 25일 안식일에 이곳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졸업예배가 있었다. 졸업예배의 설교자로는 사리원에서 목회하는 임성원 목사가 초빙되었다. 임성원 목사는 신학을 마치고 일선으로 나갈 졸업생들에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설교, 즉 "나이 어림으로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마땅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딤전 4:12)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의 높은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말에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행실에 주의하여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금전 사용에 주의할 것입니다."[2] 임성원 목사의 졸업 예배 설교는 졸업과 더불어 일선에 나가 목회자로서 봉사하게 될 신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매우 요긴한 기별이었다.

6월 27일에 개최된 졸업식은 서울에서 거행하는 첫 번째 신학교 졸업식으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조선합회신학교 교장 오버그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졸업식의 순서는 의명학교 교장인 하워드 리 목사의 신학교 역사 소개, 신학교 교감인 클린턴 리 목사의 학사보고, 원동지회 교육부 서기 브래들리(W. P. Bradley) 목사와 조선합회장이자 신학교 교장이었던 오버그 목사의 권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클

[1]당시 졸업한 학생들로는 (남) 방례두, 우필원, 이여식, 손재숙, 김정호, 이봉찬, 이면득, 정태규, 배혜경, 배상련, 오형필 (이상 11명), (여) 김인애, 최인덕, 이숙자, 강덕순, 진련이, 김성옥, 김병애 (이상 7명)이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56.

[2]교회지남, 1932년 8월호, 2.

린턴 리 목사의 “신학생 활동보고”에 따르면 저들은 “2년 동안에 장막 전도회를 다섯 번 하고, 세 곳에 예배소를 조직하고 그 외에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17명을 인도하여 공부시켜 침례까지 받게 하고, 그 밖에 침례 받은 18명에게는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현재 4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다.[1]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개 순안에서 중학교 5년 과정을 졸업한 후에 일선학교 교사 등의 교역에 종사하다가 선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 곧바로 일선사역의 길을 걸었다. 제7기 졸업생인 이여식 목사와 우필원 목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그들은 모두 의명학교 제13회 졸업생(1922)으로 졸업 후 소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아 교역의 길을 시작하였다. 이여식 목사는 황해도 흑교소학교, 강서군 대마리의 희망학교, 운북리 진명학교, 함종 함명학교, 경산 경명학교, 서울 동명학교 등에서 교사의 일을 하였으며,[2] 우필원 목사는 광명소학교의 교사 및 지역교회 담임으로 교역을 시작하였다.[3] 이렇게 교역의 길을 걷던 이들은 1930년 합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년 동안 순안과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제7회 졸업식을 통해 영예의 졸업을 한 후 사역자로 일선에 배치되었다. 우필원 목사는 전남 목포의 개척지로 발령을 받아[4] 사역의 길을 나섰으며, 이여식 목사는 평남 영유교회와 중환군에 있던 요포 신설교회 등에서 본격적인 사역활동을 시작하였다.[5]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합회신학교는 교회의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운영되었다.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사역자의 수를 합회 평의원회가 결정한 후, 의명학교 등을 졸업하여 교육, 출판, 의료 등 각종 사업 분야에서 교역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선발하여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체계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신학교는 운영되었다. 따라서 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신학 연구 외에 전도법과 실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여식 목사가 신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신학 연구의 입문을 찾은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법을 배운 것”을 두 가지 중요한 경험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6] 신학교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제7회 졸업식이 마친 이후에 한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지되었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1931년 서울로 이전한 조선합회신학교는 그 이듬해에 제7회 졸업생을 배출한 후 교회 내외의 여러 사정 때문에 휴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합회신학교는 당분간 통신학교 체제로 대체되었다.

1상게서.
2이여식, 296, 297.
3우필원, “나의 회고담,”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29, 230.
4상게서, 230.
5이여식, 298.
6상게서.

제2장 통신학교 시대
(1932~1937)

조선합회신학교가 1년 만에 휴교 상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통신학교 사업이 재림교회 교육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휴교한 신학교가 다시 개교하기까지 당분간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 통신학교가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신학교란 무엇이며, 신학교는 왜 통신학교로 대체되었는지, 나아가 통신학교 시대를 통해 재림교회 통신신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1. 통신학교 사업의 추진

통신학교는 재림교회 세계대총회 전임서기가 강조하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가정의 많은 책임을 떠나서 학교가 있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 안으로 대학과정이나 중학과정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다.[1] 재림교회는 세계 본부인 대총회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중요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세계 각 지역 본부에 통신학교 지부를 세웠는데 한국은 원동지회에 세워진 동양통신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조선합회 통신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 통신학교 사업이 한국 땅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이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통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그보다 훨씬 이른 때부터 시작되었다. 전 편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재림교회 지도부는 1922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회기리에서 개최된 조선합회 사무위원회를 통해서 의명학교 신학교 운영을 1년간 정지하고 스미스 목사로 하여금 통신 교육과정을 통해 신학교 사업을 이어가도록 결의했다. 당시 신학교 교수 중 한 사람이었던 러슬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부득불 내린 결정이었다.[2] 이 결의에서 통신 교육과정과 그 책임자로 스미스 목사가 결의됨으로써 한국에서 통신학교 사업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결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미스 목사는 몇 교회에서 통신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고 회고함으로써 이때에 통신학교 프로그램이 스미스 목사의 지도 아래서 실시되었음을 알게 해준다.[3]

한국 재림교회 초대 선교사인 스미스 목사는 버터필드 목사의 내한 이후 주로 원산

---

[1]M. A. 올슨(Olsen), "왜 통신학교가 있는가?," 교회지남, 1936년 10월호, 4.
[2]교회지남, 1922년 2월호, 24.
[3]스미스, 142.

과 동해안 지방에서 일선 사역을 담당하였다. 이후 1916년에 남한지방을 책임지던 왱거린(R. C. Wangerin, 王雅時, 王大雅 여사의 남편) 목사가 지병으로 인해 귀국하자 그 선교지역을 대신해서 책임 맡게 된다.[1] 그러나 1919년 합회총회에서 남선미션장에 오버그 목사가 선임됨으로써 스미스 목사는 선교 일선에서 당분간 물러나 의명학교 실업부의 주임을 맡게 되었다.[2] 이 때 스미스 목사는 신학교의 교사를 겸임했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통신교육과정이 실시되어 의명학교 신학교 내에 통신교육 과정 책임을 맡게 되었던 것 같다. 통신학교가 신학교와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학교의 이전을 따라 통신학교 사무도 경성에서 볼 터이라는데 금후로 통신학교에 관한 서신은 경성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록에 의해서 확인된다.[3]

신학교가 이전되기 전에 의명학교 내에 통신학교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은 제6회 합회평의원회 경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제6회 조선합회 총회는 1929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동명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4] 이 총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합회와 출판사인 시조사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평의원을 겸임하도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의 미션을 모두 대회로 승격하여 서선대회와 남선대회와 중선대회 등 3 대회 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경영위원회에서는 "신학통신과를 설치하여 각 사역자들로 하여금 자수양하게" 할 것을 합회 평의원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조선합회 교육부서기인 클린턴 리 목사는 이 제안이 원동지회 통신학교장인 샤펜버그(G. A. Scharffenberg, 한국 재림교회의 첫 여선교사였던 미미 샤펜버그와 성이 같음)목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제안을 합회 평의원회가 수용하여 1929년에 통신학교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5] 이렇게 해서 시작된 통신학교 과정은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동양통신학교는 원동지회 전체를 아우르는 통신학교 명칭임)란 명칭 하에서 의명학교의 신학부 책임을 맡았던 클린턴 리의 책임 아래 놓여졌다. 그 후 신학교가 서울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통신학교 업무 역시 조선합회신학교가 있던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고, 신학교가 잠정 휴교함에 따라 통신학교 사업이 신학교육을 대신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통신학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신학교가 휴교되고 통신학교 사업으로 대체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

[1]C. L. Butterfield, "Mission Notes," *Review and Herald*, January 25, 1917, 17.

[2]유영순 목사는 스미스 목사가 "선교사들에게 밀려서 의명학교 실업부 주임 노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영순, 81.

[3]교회지남, 1931년 4월호, 32.

[4]교회지남, 1929년 7월호, 32.

[5]클린턴 리, "조선합회 통신학교보고(1935-1936년)," 교회지남, 1937년 6월호, 37; 교회지남, 1931년 9월호, 32.

2. 시대적인 상황

재림교회 교육사업에서 통신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신학교가 서울로 이전되었다가 휴교되는 등 재림교회 교육 사업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 1929년 전후의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이 시기에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한국의 기독교회들이 겪어야 했던 도전들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왔다.

우선 일제의 종교정책이 점차적으로 억압적인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종교 교육이 점점 어려워졌다. 일본은 1931년 6월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앞세워 조선의 일본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일제는 사이토 총독 부임 이후 외면적으로 취했던 문화정책의 기만을 포기하고 폭압적 동화정책인 황국신민화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전편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는 기독교계 학교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국민교육상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회유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리 상의 이유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계통의 학교에서 신사참배 문제가 붉어지게 되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은 당시의 재림교회에도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었다. 무엇보다도 일제의 반종교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의명학교 내의 교사들 중에는 신앙중심의 교육을 반대하고 국가의 정책에 따른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1]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결국 신학교를 서울로 이전하고 나아가 의명학교를 순안지역민들에게 양도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음은 전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외부적으로 일제의 정책 변화에 따른 도전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독교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복잡한 교회 상황을 맞이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회가 사회주의, 자유주의 신학, 무교회주의, 신비주의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강조한다. 기독교 내의 사회주의의 도전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레닌의 10월 혁명(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나타났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3·1운동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의 사상을 파고들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 및 단체들이 등장하여 교회 내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을 주도하였다.[2] 이 사상은 기독교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계급투쟁에 의한 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슈에 너무 집착함으로

---

[1]이성의, 105, 106.
[2]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208 참조.

써 기독교 사상의 본질과의 괴리감이 드러나게 되어 일반 기독교단들로부터 견제를 받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1]

정치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의 유입과 더불어 신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등이 유입되면서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후 약 5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기독교 내에도 점차 분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영향을 받은 김교신, 함석헌 등에 의해 강조된 무교회주의는 이 시기에 한국 기독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성서조선" 지(誌)를 통해 민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무교회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로 인해 조직적 체계를 갖춘 기독교단들과의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2]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운동의 영향으로 내부적인 신학체계를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준비된 많은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외국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인한 결과였다. 일제의 문화정치 표방 이후 조선인들의 외국 유학의 길이 열리자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들은 20세기 초반 서구 유럽에서 발달한 자유주의 신학의 그늘 아래서 새로운 해석학적 이해를 받아들여 한국 신학계에 소개하였다. 김재준, 김영주, 김춘배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지남 필화사건, 애빙던 성경주석(Abingdon Bible Commentary) 사건 등과 관련되어 보수주의 신학과의 일대 격론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 기독교회의 중심이었던 장로교회가 분열되기에 이르렀다.[3] 이 자유주의 신학 논쟁이 벌어진 시기가 바로 1930년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러 각 기독교단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용도 목사와 같은 신비주의 운동가들의 활동 역시 기독교를 내부적으로 갈등케 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기독교 신비주의는 종말론적 사고와 개인적 성령의 체험 등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별히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한 개인이 종교적 신비감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폭발력은 매우 크다. 1930년대는 경제공황의 도래와 만주사변의 발발 등 바로 그런 시대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여기에 이용도 목사와 같은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의 등장으로 기독교 신비주의는 많은 영향을 끼쳤다.[4] 이런 신비주의 종교운동은 대부분 기존의 종교적 제도나 형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교단 및

1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기독교 언론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상게서, 207-233. 참조.

2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II(서울: 기독교문사, 1990), 205.

3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서울: 총회종교교육부, 1956).

4서명원, 한국기독교성장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77.

신학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기성 교단과 신학자들은 신자들의 합리적인 신앙을 위해 이 운동을 비판하고 견제했다. 이로 인해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경험상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더 분명하고 안정된 교회 기별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더 체계화된 신학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재림교회의 조선합회신학교도 그런 점에서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한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외적인 요인 이외에도 재림교회 신학교에 영향을 끼친 시대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30년대 들어서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경제대공황이었다. 경제공황이 한국 교육사에 끼친 영향을 다룬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교육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제6대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坦一成, 1931년 6월)는 "농총진흥운동과 근로주의의 교육"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당시에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력 증강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내세운 정책이었다.[1]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적 전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국제연맹의 탈퇴, 워싱턴 조약[2]의 폐지 등으로 외국과의 통상무역이 어려워지게 된 일본은 만주괴뢰정권마저 수립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여파에 휩쓸리"게 되자 일본은 이러한 총체적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식량보급기지화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3] 이런 절실한 필요에 따라 1931년 일제의 교육정책은 '농촌진흥,' '자력갱생'의 구호 아래 '교육 즉 생활,' '근로주의적 교육'의 실천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이 교육에 끼친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만큼 당시의 역사적 정황은 어려웠고, 그런 어려운 경제적 현실은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공황이 한국교육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 시기에 재림교회 역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비켜갈 수 없었다. 1931년 신학교를 서울로 옮기고 본격적인 신학교육 사업을 추진하려던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정책에 도전이 되었던 한 요인은 바로 이 경제공황과 관련이 있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이 경제공황의 여파로 서울에서의 신학교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학교를 통한 교육사업을 잠시 중단하

---

[1]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288.

[2]1921년에서 1922년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군비 축소 회의. 미국의 주창으로 제일차 세계대전 뒤에 태평양·극동 문제, 해군 군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9개국이 참가하여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 태평양에 관한 4개국 조약, 각국의 주력함 보유 비율을 포함한 해군 군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3]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연구(서울: 교학연구사, 1992), 191.

고 당분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명맥을 유지해 갔는데 그것이 바로 통신학교 사업이었던 것이다.[1] 특별히 이 통신학교 사업을 통해 통신신학을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양성의 맥을 이어갔다. 그래서 통신학교 사업, 즉 통신신학은 삼육대학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3. 통신학교 사업과 통신신학

1929년 통신학교 사업이 결의된 직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당시 통신학교 사업의 책임을 맡았던 클린턴 리 목사의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37년 6월 교회지남에 소개된 "조선합회 통신학교 보고"에서 이 첫 시기의 통신학교 사업 추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될까 하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분들이 여러 과정들을 마칠 때에 이 조직이 사역자나 교회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정신상으로 민활하게 하고 노쇠함을 면케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1931년 봄에 비로소 기초가 세워지고 다섯 가지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2]

1) 통신학교 사업의 의의와 시작

원동지회 샤펜버그 목사의 제안에 따라 조선합회 내에서도 시작하기로 한 통신학교의 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31년 봄에 이르러서였다. 그 이전의 2년간은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준비기간 동안 클린턴 리 목사는 통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첫째는 통신학교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통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다. 대총회와 원동지회가 통신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도자들은 아직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비적인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통신학교 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클린턴 리 목사를 포함한 한국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이르게 되었다.

통신학교 사업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기대와 호소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당시 합회장인 오버그 목사의 글이 있다. 두 번에 걸쳐 교회지남을 통해 "통신학교에 관하

---

[1]경제공황의 여파로 대총회의 지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조선합회신학교는 부득불 휴교하기에 이르렀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57, 158.

[2]클리턴 리, "조선합회 통신학교 보고 (1935년-1936년)," 37.

여" 소개한 이 글은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통신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는지를 잘 이해하게 해 준다. 우선 오버그 목사는 한국 재림교회가 왜 통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그 설립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 학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벗어나서 멀리 다른 지방에 나아가 어떤 중학이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가 많다. 그럼으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가의 집에 앉아서 중학이나 대학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통신학교를 세운 것이다.[1]

이 글에 나타난 통신학교의 운영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함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과정이 개인적 사정으로 중학과정과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재림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2] 따라서 이 사업은 "교회의 가장 유력한 여러 교수들"의 의해 지도되었다. 통신교육의 특성상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내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것이었다. 오버그 목사는 당시 미국 내에서 통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전문 혹은 대학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수보다 4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질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통신학교 과정이 검증된 교육제도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3]

이 안내문을 통해서 합회장인 오버그 목사는 통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별히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통신학교의 사업이 1930년에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통신과목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수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인 "성공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생 모집과 관리, 수업 진행과 수료에 관한 모든 정책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의 글은 이렇게 통신과정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통신학교 과정을 호소하는 이 글에서 오버그 목사는 공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소개하면서 공부를 장려하였다. 그에 따르면 통신학교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 책을 읽고 잘 이해한 후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매우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었다. 오버그 목사는 대부분의 통신과정이 숙련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만큼 주의해

---

[1]오버그, "통신학교에 관하여," 교회지남, 1930년 7월호, 17.

[2]이런 입장은 6년 후에 대총회 통신학교 전임서기인 M. A. 올센(Olsen)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M. A. 올슨(Olsen), "왜 통신학교가 있는가?" 교회지남, 1936년 10월호, 4.

[3]오버그, 17, 18.

서 잘 읽고 배우기만 하면 공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1] 그는 성경에 나타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통신학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직무에서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통신학교가 이미 다양한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역설하였다. 특별히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십 분 정도 시간을 잘 할애하기만 하면 훌륭한 신학적 수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자신의 적은 시간을 즐거움으로써 과정을 공부하는 일에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통신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하였다.[2] 통신학교 사업에 입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개인의 인내력임을 강조하면서 통신학교 사업에 대하여 전교인들에게 호소하였다.

오버그 목사의 호소의 글은 당시 재림교회가 통신학교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통신학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다. 조선합회 교육부 전임서기이자 통신학교 조선지부장이었던 클린턴 리 목사는 "1931년 봄에 비로소 기초가 세워지고 다섯 가지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3]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과정은 사경법, 고등교리, 본교회사, 영어강습과 등이었다.[4] 이 과목들이 모두 1931년에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 김재신 목사는 클린턴 리의 보고 및 기타 자료들을 토대로 교과서의 개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교과서는 1931년 말까지 '사경법'만 완전히 준비되었고, 고등교리, '편지서'는 1933년에 가서야 발간되었다. 그리고 '중등교리,' '다니엘서 연구,' '묵시록 연구,' '안식일학교부 사업' 4과목과 그 외 특별과(전도부인과 자급전도자를 위하여)의 과목 '교리,' '신약총론,' '사경법'과 본과의 과목으로 '교회정치,' '그리스도인 교육,' '사역지법'의 세 과목과 특별과의 '구약총론,' '다니엘과 묵시록,' '복음사역자'의 세 과목은 1934년에 준비되었는데 이 과목은 신학교와 5년 전도과의 과목이 다 되는 것이며, 몇 과는 교사의 증명서를 받는 데도 요구되는 과목이었다.[5]

이 내용을 인용한 원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오버그, "통신학교에 관하여(속)," 교회지남, 1930년 9월호, 10, 11.

[2]상게서, 11.

[3]클린턴 리, "조선합회 통신학교 보고(1935-1936년), 37.

[4]클린턴 리, "통신학교 소식," 교회지남, 1932년 10월호, 15. 나머지 한 과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학생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59; 클린턴 리, "1934년을 맞는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 교회지남, 1934년 1월호, 24, 25.

(1) 통신학교 과목은 1932년 말에 최초로 '사경법'이 완성되었다.[1]

(2) 1932년에 준비 중에 있던 '고등교리,' '본교회사,' '편지서'가 1933년에 완성되었다.

(3) 새로운 교과목 4 가지, 즉 '중등교리,' '다니엘서 연구,' '묵시록 연구,' '안식일 학교부사업'이 1933년에 준비됨.

(4) 전도부인과 자급전도자를 위한 '특별과'의 교과목으로 '교리,' '신약총론,' '사경법'이 1933년에 별도로 준비됨.

(5) 1934년도에 '본과'의 과목으로 '사역지법,' '교회정치,' '그리스도인 교육'이 준비되었으며, '특별과'의 과목으로 '구약총론,' '다니엘과 묵시록,' '복음사역자' 등 3과목이 준비되었다.[2]

이렇게 해서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전 과목이 통신과목으로 준비되었다. 이런 교과목의 편성을 통해서 볼 때 성경통신학교 과정은 사실상 신학교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림교회는 이 통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과정 및 5년 전도과의 과정도 대신하고자 했다. 아울러 재림교회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교사증명서를 받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과목들도 이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통신학교 교육이 재림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신학교와 통신신학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도 별도의 관리 아래 운영되었다. 통신학교 역시 본과와 특별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를 자세하게 구분해 본다면 통신학교의 본과는 대총회로부터 추진되고 있던 일반 성도들을 위한 통신과정이며, 특별과는 전도부인이나 자급사역자 등 일선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통신신학은 조선합회신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통신학교 과정에 신학교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신학교를 대신하고자 한 프로그램이었다.

2) 통신신학의 시작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통신학교 사업은 사실상 통신신학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를 통신학교 사업을 통해서 신학교육을 대신하고자 했던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31년 서울로 이전한 조선합회신학교는 1년 후인 1932년에 제7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사정상 휴교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조선합회신학교가 휴교를 하게 된 직

---

[1]김재신 목사가 1931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오타인 것 같다. 그가 활용한 원문에는 "1932년 말까지에 교과서로는 오직 '사경법'만 완전히 되었고"라고 기록되었다. 교회지남 1934년 1월호, 24.

[2]상게서, 24, 25.

접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해 대총회로부터 지원되던 운영자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이미 언급했다.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조선합회는 교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원 및 감봉 정책이 추진될 큼 경제적인 여건이 불안정하였다. 1933년 2월에 개최된 제8회 조선합회 총회의 보고에 따르면, "1931년과 32년에는 예산의 축소로 사역자를 줄이고 사역자의 봉급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기 양년 간에 받은 예산은 각각 6퍼센트와 18퍼센트가 적은 것이었다."[1] 1932년 5월 이후에는 환전이익이 30퍼센트에 달해 지원금의 10퍼센트만 삭감되었으며, 1933년에는 다시 15.3퍼센트가 삭감된 예산으로 교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 운영자금이 삭감되고 사역자들마저 감원 및 감봉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자 양성을 계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32년 6월에 7회 신학교 졸업식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학교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2]

조선합회신학교의 휴교는 원래 1년간만 하기로 한정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게 되자 교단 지도부는 신학교를 개교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통신학교 사업으로 신학교 사업을 대신하도록 결의하였다.[3] 이 결의에 따라, 1933년 2월에 개최된 조선합회 총회에서는 통신학교 과정을 통해 남녀 신학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예과생으로 남자 23명과 여자 4명, 합 27명이 입학하"였다.[4] 이로써 1년간 정지되었던 신학교 사업은 통신신학의 형태로 다시 재개되었다.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통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통신신학 2년 과정을 삽입함으로써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맥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통신학교 사업은 곧 신학교 사업의 연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때 통신과정으로 진행되었던 통신신학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표 14]통신신학 교육과정 내용 일람

번 호	과 목	과 정	수업료	우편세 등	합 계
예 과					
106	중등교리	40	15.00	3.00	18.00
126	본교회사	20	7.50	1.50	9.00
제 1 학 년					
203	다니엘 연구	20	7.50	1.50	9.00
204	묵시록 연구	20	7.50	1.50	9.00
181	사경법	10	3.75	0.75	4.50
182	교회정치	13	3.75	0.75	4.50
202	편지서 연구	40	15.00	3.00	18.00

[1]교회지남, 1933년 3월호, 3; 이영린, 64.
[2]교회지남, 1932년 4월호, 32.
[3]교회지남, 1933년 3월호, 30; 교회지남, 1933년 5월호, 29.
[4]상게서.

	어학과	40			
224	기독교사	40	15.00	3.00	18.00
273	그리스도인 교육				
	실 습				
제 2 학 년					
207	고등교리	40	15.00	3.00	18.00
284	사역지법	20	7.50	1.50	9.00
	실 습				
184	안식일학교부 사업	20	7.50	1.50	9.00
183	선교부 사업	20	7.50	1.50	9.00
185	인쇄부 사업	20	7.50	1.50	9.00
	교육부 사업	20	7.50	1.50	9.00
186	의용선교회부사업	20	7.50	1.50	9.00
	의료부 사업				
	어학과				
283	기독교 확증	40	15.00	3.00	18.00
	성경과 과학				
	기독교 논리				
	성경계통				
	고고학				
205 206	선지서 연구	40	15.00	3.00	18.00

의명학교에 신학교가 설립된 이후 줄곧 함께 진행해 오던 여신학교의 운영 역시 통신신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여신학생의 경우 여전도부인의 역할이 교회 내 지도자들의 역할에 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역시 자급전도자들을 위한 '특별과'와 동일한 과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교과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특별과(여신학교) 통신 교과목 내용 일람

번호	교과목	수업료	우편세	합계	참고서
66	교리	1.50	2.50	4.00	성경연구, 고등예급표준
60	신약총론	1.50	2.50	4.00	신약총론
64	세계지리역사	1.50	2.50	4.00	세계지리, 역사
82	복음사역지법	1.50	1.50	3.00	복음사역자
67	다니엘, 묵시록	1.50	2.50	4.00	다니엘 연구, 묵시록 연구
50	구약총론	1.50	2.50	4.00	구약총론
102	본교회약사	0.75	1.25	2.00	본교회약사
68	교회정치	0.75	1.25	2.00	교회요람
81	사경법		3.00	3.00	사경법

여 신학과정의 경우 위에 언급된 교과목들을 이수한 후 2개월 이상 3개월간의 강습회에 참석하면 조선합회신학교 특과 졸업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격을 인정하였다.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수년 동안 이와 같은 통

신신학 체제를 통해 사역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는 당시의 여러 교단들이 자신들의 교단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경학원 등을 운영함으로써 신학교육 사업의 효시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무엇보다도 신학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탁월한 교사들에 의해서 잘 준비된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통신신학 제도는 향후 재림교회 신학교육 내용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3) 통신학교 사업 전개

통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해는 1931년경이었다. 이듬해인 1932년에 통신학교 책임자인 클린턴 리 목사가 제공한 소식에 따르면 그 해 10월까지 입학생 수는 총 52명이었다. 각 교과목별로 보면 사경법이 21명, 고등교리에 12명, 본교회사에 10명, 영어강습과에 9명 등이 등록을 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1] 그러나 통신교육의 특성상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공부하여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열정으로 통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이 사업은 발전하게 된다.

통신학교 과정은 과목별로 진행되었다. 통신학교에 입학하여 첫 과목을 제일 먼저 이수한 사람은 임성원 목사였다. 순안의명학교 3회 졸업생으로 1916년 4월에 전도사를 거쳐 192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임성원 목사는 통신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등록하여 1932년에 최초로 사경법을 마치고 본교회사 과정에 등록하였다. 임종회도 그해 사경법을 마치고 고등교리를 공부하였으며, 양총일, 박기창, 송기영 등도 첫 과목인 사경법을 마치고 시험을 준비하는 등 1932년에 여러 사람들이 통신학교를 통해 체계적인 공부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양총일은 사경법을 완전히 수료하였고, 박겸서 역시 사경법을 수료한 후 고등교리과에 입학하였다.[2]

1933년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통신학교 사업과 더불어 통신신학이 시작되었다. 그해 5월에 27명의 학생들이 통신신학의 예과에 입학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외에도 통신학교 본과에는 1933년 5월까지 총 350명이 등록하여 공부를 하였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통신학교 과정을 이수하지는 못했다. 교과목에 의지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입학생들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1932년에 이어 1933년 3월에 박기창은 사경법을 마치고 고등교리 과목에 등록을 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임성원, 손재린, 김순성,

---

[1]클린턴 리, "통신학교 소식," 교회지남, 1932년 10월호, 15.
[2]클린턴 리, "통신학교의 소식," 교회지남, 1932년 11월, 31.

김설 등이 본교회사를, 조치환, 장재복, 리경일은 사경법을, 이항식은 고등교리를, 김명길, 정태규, 임병의는 사경법을 각각 수료하였다.[1] 아울러 11월에 이르러서는 본과와 특별과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착실하게 각 과정을 이수하여 통신학교의 사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33년 11월 현재, 교회지남에 나타난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의 수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2]

[본과] 사경법 – 오성룡, 정태규, 전인진, 리경일, 송기경, 오영섭, 박기창, 장재복, 김명길, 김덕수, 김룡을, 감항모, 임병의, 조치환. 본교회사 – 임성원, 김룡호, 김관신, 박형진, 김설, 정성철, 손재린, 김병철, 김윤성, 양총일, 박기풍, 이응준. 고등교리 – 이항식, 박윤순. 다니엘서 연구 – 김관신.

[특별과] 교리 – 김정완, 박연비. 사경법 – 이운홍, 김성옥. 신학총론 – 박연비.

이 시기의 통신학교 사업의 성격을 보면 그것이 오늘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통신학교를 통해서 교회 내 교역자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1934년 이여식 목사의 권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강진하 목사에 이어 1934년부터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의 사무를 책임 맡았다. 당시 통신학교의 책임자는 클린턴 리 목사였고, 그와 함께 강진하 목사가 2년간 통신신학을 맡아서 운영하였다. 1934년에 이르러 강진하 목사는 이여식 목사를 대신 추천하고 자신은 서선대회의 목감교회로 목회를 나갔다.[3] 이렇게 해서 통신학교 및 통신신학의 사무를 맡게 된 이여식 목사는 통신학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특별히 그는 "교역자는 결코 자기는 충분히 배웠음으로 이제는 노력을 좀 덜하여도 관계치 않다고 생각하지 말지니 일평생 그 공부를 그치지 말고 날마다 배우고 그리하여 얻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지니라"[4]는 엘렌 화잇의 권면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을 호소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수양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명백히 깨달을수록 의무와 책임의 더욱 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 부름을 입은 자는 더욱 진리를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5]

이여식 목사는 통신학교가 거의 통신신학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 글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당시 통신 신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첫째 그룹은 "계속적으로 향상하는 급," 둘째 그룹은 "처음 활력을 중단한 급," 셋째 그룹을 "잠재한 세력을 도무지 발휘하지 않는 급"으로 나눈 후 좀 더 열성적으로 공부에 임해주기

---

[1]강진하, "통신학교소식," 교회지남, 1933년 7월호, 30.
[2]클린턴 리, "1934년을 맞는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 교회지남, 1934년 1월호, 25.
[3]강진하, '내 평생 걸어온 발자취,"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88.
[4]엘렌 G. 화잇(Ellen G. White), 복음교역자(*Gospel Workers*) (서울: 시조사, 1988), 130.
[5]이여식, "통신학교 학생들과 일반교우들에게," 교회지남 1934년 6월호, 26.

를 당부하였다.[1] 이런 일련의 권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신학교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재림교회는 통신학교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둘째, 이 통신학교 사업은 주로 통신신학 수준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의 관리를 조선합회신학교의 책임자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프로그램 자체가 사역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통신학교의 입학생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교회 지도부의 권면과 강조가 매월 교회지남에 게재되고 있다. 넷째, 통신학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다섯째, 통신학교는 1930년대 재림교회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통신학교가 재림교회의 평생교육 사업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관이었음은 당시 통신신학을 통해 성경을 연구한 한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평양에 거주하면서 강진하 목사의 도움으로 통신학교의 학생이 된 김시권은 교회지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 교제는 … 작년 어느 달인가 강진하 씨의 권면으로 통신학교의 학생이 되어 교리과목을 마쳤습니다. 한 과씩 공부를 계속할수록 통신학교는 성경연구자와 성경교수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기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왕에도 좋은 서적을 보지 못한바 아니나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지나버리거나 그때에는 깨달았으나 즉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통신학교는 공부한 것을 일일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음으로 공부를 아니할 래야 안할 수도 없고 기억도 잘 됩니다. … 성경연구자는 이 기관을 이용하심이 좋을까 합니다.[2]

비록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부로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통신학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계속교육과 평생교육, 나아가 신학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분명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통신학교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전개 과정에 대한 통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통신학교 사업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3] 1934년까지의 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4]

[표 16] 연도별 입학자 수와 수업자 현황표

연 도	입학자수	과목입학자수	과목수업자수	수업 공과 수
1931		41		52

[1]상게서, 26, 27.
[2]김시권, "성경연구는 통신학으로," 교회지남, 1934년 10월호, 26.
[3]클린턴 리, "동양통신학교 조선지부의 사업보고," 교회지남, 1935년 6월호, 37.
[4]클린턴 리, "조선합회 통신학교보고(1935-1936)," 교회지남, 1937년 6월호, 37.

1932	53	15	4	177
1933	81	110	34	1068
1934	56	80	27	1011
1935	17	34	12	443
합계	207	280	77	2751

[표 17] 과목 입학과 수업 현황

본 과			특 별 과		
과 목	입학자 수	수업자 수	과 목	입학자 수	수업자 수
본교회 역사	57	18	신약총론	12	1
중등교리	5	2	고리	36	8
사경법	55	32	다니엘 묵시록	1	
교회정치	3		사경법	14	4
안식일학교 조직법	8	3	합계	270	77
편지서	1		입학취소자	10	
다니엘	15	4			
묵시록	3	1			
고등교리	60	4			

4) 역문(譯文)과정의 시작과 통신학교 사업의 결과(1937)

조선합회 통신학교 사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1937년 보고 자료에 나타난다. 조선합회 교육부 전임서기이자 동양통신학교 책임자인 클린턴 리 목사는 1935년부터 1936년까지 2년간의 통신학교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통신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1933년에 첫 번째 졸업생 7명을 배출한 데 이어, 1935년 까지는 87명, 1936년 말에는 152명이 수업증서를 받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통신학교 사업에는 서양인들을 위한 과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조선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통신학교 과정 중에 서양인들을 위한 제1학년 과정으로 '조선어독본'을 개설하였다. 1936년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어독본을 이수한 외국인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통신학교가 성인교육을 위한 재림교회의 핵심 교육 사업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어학교육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재림교회 교육제도가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특별히 통신학교를 통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집중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재림교회는 대총회로부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도를 받았는데, 교육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상게서.

대총회로부터 시작된 이 통신학교 사업이 원동지회에 있던 동양통신학교의 조선지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선진적인 교재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이런 선진화된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인해 1930년대는 통신학교 사업으로 훌륭하게 교육사업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재림교회의 통신학교 사업이 대총회로부터 지도를 받은 선진적인 프로그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재이다. 이때가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교재들 중에 많은 것들이 영문판을 번역한 것들이었다. 클린턴 리의 보고 내용에서 조선형제들을 위하여 만든 과정 중에는 역문과정과 편집과정이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역문과정이란 영어로 된 교재를 한글로 번역한 교재를 말하는 것이며, 편집과정이란 신자들을 위해 한글로 만들어진 교재를 말한다. 1936년까지 준비된 통신학교 교재들 중에 역문과정은 '중등교리'(106, 불맨 저), '본교회사'(126, 올스 저), '사경법'(181, 영문번역), '교회정치'(182, 영문번역), '선교부사업'(183, 영문번역, 첨가), '안식일학교부 사업'(184, 영문번역), '편지서 연구'(202, 영문번역), '다니엘 연구'(203, 영문번역), '묵시록 연구'(204, 영문번역) 등이 있었고, 편집과정은 '고등교리'(207, 통신학교 조선지부에서 편찬하여 원동지회 교육부의 검열을 받음), '구약총론'(50), '신약총론'(60), '교리'(66), '다니엘, 묵시록'(67), '사경법'(81, 181에 기초하여 만듬) 등이 있었다.[1] 1937년 현재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모두 385명에 이르며, 그들 중 152명이 한 과목 이상을 수료하였다.

[표 18] 통신학교 지원자와 수업자 수 비교표

번 호	과 목	지원자	수료자	비고
60	신약총론	31	10	
66	교리	49	12	
67	다니엘, 묵시록	12	1	
81	사경법	20	10	
102	본교회 약사	1		
106	중등교리	10	3	
126	본교회사	63	23	
181	사경법	61	39	
182	교회정치	16	8	
183	선교부사업	3	2	
184	안식일학교부사업	11	4	
202	편지서 연구	2	2	
203	다니엘 연구	37	17	
204	묵시록연구	8	4	
207	고등교리	61	17	
		385	152	

[1]상게서, 38

위에 정리된 도표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신학교가 휴교한 이래 여러 해 동안 신학교육을 대신해 오던 통신학교의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도표이다. 이 도표는 지금까지 모두 385명의 사람들이 통신학교의 각 과목에 입학하였으며, 그 중 152명이 각각의 과목들을 수료했음을 보여 준다. 이를 연도별도 좀 더 세분해 보면 1931년~1933년에는 44명이 지원해서 7명이 수료했으며, 1933~1395년에는 229명이 지원해서 80명이 수료했다. 그리고 1935년~1937년까지는 112명이 지원해서 65명이 수료해 총 385명 지원에 152명이 수료한 것이었다.[1] 통신학교의 책임자인 클린턴 리 목사는 이 통계를 교회지남에 게재함으로써 통신학교 사업의 한 획을 그어 놓는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신학교를 다시 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재림교회의 고등교육은 의명학교 내의 신학교로부터 서울 회기리에서 시작한 조선합회신학교와 통신신학을 거쳐 새로운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기관이 바로 1937년에 시작한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이다.

---

[1]상게서.

제3장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 시대
(1937~1942)

여러 해 동안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잠시 축소되었던 재림교회의 사업은 1937년 들어서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해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조선합회 총회에서 합회장 오버그 목사는 "조선의 경기 상태가 호경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므로 교회사업은 큰 발전이 있을 전망이"라고 보고함으로써 1930년대 들어서 잠시 위축되었던 교회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하였다.[1]

이런 경기의 호전과 그에 따른 교회사업의 호전에 대한 전망은 1935년부터 이미 제기되었다. 1935년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9회 합회 총회에서 오버그 합회장은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인한 불경기로 교회가 재정상의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1933년부터는 십일조의 수입이 점점 호전되어 매년 평균 400원씩 증가되었으므로 그간 4년간 증가된 백분비는 244퍼센트"나 된다고 보고하였다.[2] 교회의 재정적 위기가 서서히 극복되어가고 교회 발전에 대한 밝은 전망이 이어지면서 한국 재림교회는 전국적으로 더욱 더 체계적인 선교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확대하는 작업도 1934년부터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부의 사업도 하나로 통합하여 긴축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다시 5개 대회로 나누고 더 활발한 전도 활동을 추진하였다.[3] 그 결과 1937년에 이르러 한국 재림교회는 다시 안정적인 기조 아래서 교회를 운영하게 됨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는 곧바로 더 많은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해 주었고, 그 결과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휴교상태에 놓여 있던 조선합회신학교를 다시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1. 고등교육의 재개(1937)

1937년 1월에 개최된 합회 평의원회에서는 5년 전 폐교한 신학교를 계속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동안 통신신학을 통해서 운영하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학교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결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전에 조선합회신학교 장소인 회기리 본부예배당 날개방에서 1937년 4월 12에 신학교육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그

---

[1]교회지남, 1937년 6월호, 3-7; 이영린, 71.
[2]교회지남, 1935년 6월호, 2-4.
[3]교회지남, 1934년 7월호, 2-4.

명칭은 “사역자양성소”로 정하였다.[1]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가 개원되기에 이른다.

이 회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재림교회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그동안 신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클린턴 리 목사를 조선합회 교육부 전임서기로 선출하였다. 교회지도부는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를 갖춘 학교 건물들을 세워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영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사들을 양육해야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일의 적임자로 클린턴 리 목사를 선임하였다.[2] 이렇게 해서 클린턴 리 목사는 신학교와 통신학교의 책임을 넘어서 전체 교육사업의 책임을 맡아 교육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회평의원들은 일본제국의 한 곳에 대학을 세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회에 청원하자는 결의도 함께 하였다.[3]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부 전임서기의 선출 결의와 사역자양성소 재개에 대한 결의와 더불어 대학 설립에 대한 청원을 결의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조선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시작된 해는 1915년 이후였다. 경술국치 이후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실용적인 근로인, 하급관리, 사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1911년 8월에 공포된 이 교육령에는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이 배제되어 있었다. 일제의 교육정책에서 전문학교 규칙은 1915년에 개정사립학교규칙과 더불어 발표된 전문학교 규칙이 처음이다. 이때로부터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학설립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4] 대학교육에 대한 일제의 폐쇄 정책은 사이토 총독에 의해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육령에서는 전문학교뿐만 아내라 대학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교령까지 포함시켰다.[5]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대학교육을 불허함으로써 이 교육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철저하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폐쇄하고자 하는 일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전문학교 설립과 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교육기관들이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전문학교 나아가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우선 1915년 3

---

[1]교회지남, 1937년 2월호, 6.

[2]상게서.

[3]상게서.

[4]제1차 조선교육령 제2장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전문학교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는데 이 규정은 사실상 전문학교 설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 손인수, 한국교육사 II(서울: 문음사, 1998), 631.

[5]제2차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대학교육에 대한 조항은 제12조에 나타난다. 상게서, 635.

월에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경신학교 설립 당시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던 언더우드는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1917년 4월에 연희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화학당 역시 대학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1925년에 이르러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도 1906년 명진학교를 전신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한 결과 1930년에 이르러 전문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보성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의 전문학교가 만들어졌다.[1] 그러나 이 시기에 전문학교 이외에 대학교의 설립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일제의 대학설립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조선민립대학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3.1운동 이후 민족의 지도자들은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민립대학설치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런 움직임을 간파한 일본 내에서는 1920년과 1922년에 각각 일본동양대학 분교와 일본제국여자전문학교의 분교를 서울에 설치할 것을 사이토 총독에게 의뢰하였다. 그러나 일본 본국의 대학령에는 조선에 분교를 세울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당분간 유보되었다. 그래서 사이토 총독은 한국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관립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제1단계 조치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조선의과대학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2]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선민립대학 설립 추진운동은 가속화되었다. 당시 민족지도자들이 조선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우리의 교육수준이 국내에 대학을 가질 정도에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민력이 이것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로 대학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손으로 지도적 인재를 길러 내자는 것이고, 넷째로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민족정신을 높이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희망과 긍지를 주는 것이 큰 수확이 된다.[3]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 1월 이상재를 대표로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결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23년 3월 29일에는 서울 기독교중앙청년회관(YMCA)에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지방 각 곳에 조선민립대학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지만 전국적인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해 기금모집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 일제가 민립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1924년 5월에 관립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동화정책을 추

---

[1]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188, 189.
[2]손인수, 658.
[3]김기석, 남강 이승훈(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부, 1964), 275, 276. 손인수, 658에서 재인용.

진함으로써 민립대학 추진은 결국 중단되었다.[1]

조선민립대학 추진 이외에도 이화학당의 연합기독교여자대학, 연희전문학교의 종합대학 승격 운동, 오산학교의 농과대학 설립 계획, 보성전문학교의 민립대학 승격 추진 등이 192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결국 일제의 치하에서 대학 설립은 요원한 과제였다.[2] 삼육대학교의 운영 주체인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기에 대학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1937년의 합회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대학교육을 지회에 청원하기로 한 이유는 "이 시대가 그 전시대보다 더욱 훌륭한 수양을 요구하는 것과 이런 사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합회에서 보다 더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과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런 형편에 유의하여 저들의 자녀로 이러한 수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3] 이 뜻이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허황된 것은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대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했다. 그러한 의지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의 해방공간에서 비로소 성취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대학 설립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가 이미 이때부터 구체화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재림교회 역시 동일한 시대정신에 의해 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해방과 더불어 본격적인 대학교육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삼육대학교는 그런 시대적 과정에 따라서 발전해 온 것이었다.

2. 경성삼육원의 설립(1938)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의 본격적인 역사를 다루기 전에 경성삼육원(京城三育院)이 설립된 역사를 잠깐 다룰 필요가 있다. 재림교회 최초의 중등교육 기관으로 순안에 의명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그 학교는 결국 1937년에 순안의 주체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일반 중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이렇게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중학교 과정의 학교가 없어지게 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교단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곧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당시 의명학교가 순안의 주체들에게 양도된 이후 삼육교육 이념에 입각한 교육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음을 감지한 지도자들이 삼육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조처였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의명학교의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학생 전원을 신자들로만 국한하고 정부의 간섭을 초래하게 될 정부 인가를 기피한 채 오로지 삼육교육이념에

---

[1]손인수, 662.
[2]손인수, 663.
[3]교회지남, 1937년 2월호, 6.

입각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1938년 4월 10일에 남녀 학생 12명을 모집해 회기리 본부예배당에서 3년제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였다.[1]

이 학교를 처음 개교할 당시에는 이름을 정하는 것조차 기피했었다. 그러나 이름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학교의 이름을 경성삼육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경성삼육원은 한국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역사에서 "삼육"이란 명칭이 나타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재림교회 교육이념이 삼육교육이념이었다는 사실은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교육이념의 중심인 삼육이란 단어가 재림교회 교육기관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15년 중국 상해에 세워진 상해삼육전도학교(上海三育傳道學校)였다. 여기에 등장한 삼육이란 용어는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아시아의 재림교회 학교의 명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26년에 이르러 재림교회 학교의 교명에 삼육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해에 동경에 있던 재림교회 학교인 아마누마학원(天沼學院)은 남녀공학에서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남자들을 위한 학교는 지바(千葉)로 옮겨 일본삼육학원(日本三育學院)으로, 여자들을 위한 학교는 아마누마(天沼)에 그대로 남아서 일본삼육여학원(日本三育女學院)으로 명명하였다.[2] 경성삼육원이란 명칭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온 것이었다.

경성삼육원은 개교한 지 1년 만에 규모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자들은 1939년에 면목리(경기도 고양군 면목리) 용마산 밑에 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학교 건물과 기숙사와 교사사택 등을 지은 후 그해 9월에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이 학교의 초대원장은 이성의 목사였고, 곽종수, 윌리엄스(W. C. Williams), 최옥인, 나가이(永井若技) 등이 교사로 수고하였다. 경성삼육원은 학교를 이전한 후 1941년 3월 17일에 첫 번째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그 1회 졸업생은 유준현, 조원삼, 이홍섭, 김옥목, 장도훈, 박옥현, 정충실 등 7명이었다. 제1회 졸업식이 있은 후 이성의 원장은 클린턴 리 목사를 대신하여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의 소장으로 전임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곽종수 선생이 경성삼육원 제2대 원장이 되었다.[3]

이후 경성삼육원은 일제의 교육 탄압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1943년에는 학교 이름을 "경성삼육농사강습회"로 개칭하여 명맥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지만 그 마저도 그해 12월 재림교회의 해산과 더불어 문을 닫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 후 경성삼육원이 다시 문을 연 것은 1947년 9월에 가서였다.[4] 경성삼육원은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고등 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

[1]이영린, 148; 오만규, "한국 재림교회 교육80년사," 교회지남, 1984년 11월호, 21.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66, 167.
[3]상게서.
[4]오만규, "한국재림교회 교육80년사," 21.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교육기관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의 식민지배 말기의 복잡한 교육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당분간 문을 닫게 되는 비운에 처하게 된다.

3. 조선합회 사역자양성소 운영(1937~1942)

1937년 1월 합회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가 정식으로 개교한 날짜는 4월 12일이었다. 사역자양성소의 소장으로 임명된 클린턴 리 목사는 양성소가 시작되는 4월 12일에 맞춰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역자양성소가 실제로 오픈된 것은 예정보다 늦은 5월 2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직전에 합회 총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합회 제10회 합회 총회가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회기리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사역자양성소는 부득불 다음 달 초에 개교되었던 것이었다.[1]

1) 사역자양성소의 조직 및 체제

새롭게 시작된 사역자양성소는 클린턴 리 목사가 소장을 맡고, 이여식, 그레이스 리, 와츠(R. S. Watts, 元倫常), 이성의, 길(E. Gill, 吉仁愛) 등이 교사 및 직원으로 선임되었다. 아울러 합회장 오버그 목사, 의료부장 루(G. H. Rue, 柳濟漢) 의사, 출판부장 바르(E. W. Bahr, 裵義悳) 목사 등이 특별강사로 선정되었다.[2] 구성된 교수진들 중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모두 이 시기의 재림교회 핵심지도자들이었다. 바르 목사는 1925년에 독일에서 내한하였고, 와츠 목사는 1926년에, 루 의사는 1929년에 미국에서 각각 내한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사역자양성소의 교수진들 중에 한국인은 이여식 목사와 이성의 목사가 있었다. 이여식 목사는 클린턴 리 소장을 도와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는 2년 후인 1939년 5월에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로 교비유학을 떠났다가 1941년 9월에 돌아와 사역자양성소가 폐교되던 1942년 5월까지 양성소의 교수직을 역임하였고, 그 후 경성삼육원의 원장으로도 봉사하였다.[3] 한 편 한국인으로서 사역자양성소의 교사로 활동했던 이성의 목사는 나중에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에 사역자양성소의 소장에 임명되어 선교사 이후 시대에 한국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사역자양성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2개월 후에 실무 책임을 담당한

---

[1]교회지남, 1937년 5월호, 48.
[2]상게서.
[3]이여식, "나의 자전,"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99, 300.

이여식 목사는 지면을 통하여 양성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양성소의 개교와 더불어 남자 18명, 여자 8명 등 총 26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하여 매일 다섯 과목씩 공부하게 되는데, 각자 지원한 과의 수업 과정에 따라서 담당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았다. 여기서 지원과라 함은 수업 후 각 개인이 나아갈 업무 방향에 따라 구분된 과정을 말한다. 사역자양성소에 입학한 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사무부, 전도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학생들은 고등전문 예비반을 선택하여 공부하기도 했다.[1]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남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오전에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5시간씩 공부하였으며, 오후에는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학업에 몰두했다. 이 일을 위해 사역자양성소에는 도서실도 운영되었다.[2] 전반적으로 볼 때, 시설 규모는 1931년에 운영했던 조선합회신학교와 다르지 않았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전의 조선합회신학교 운영과 통신신학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었다. 특별히 통신학교 등을 통해서 기존에 사역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양성소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사역자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2) 사역자양성소의 운영

1937년 5월에 개교해서 1942년 5월에 일제의 압력으로 폐교할 때까지 5년 동안 사역자양성소는 재림교회 신학교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는 남녀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지난 1917년부터 시작된 재림교회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인 신학교 과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운영하였다. 교수진과 교과목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신학교육에 정진함으로써 개교 이래로 강제 폐교를 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사역자를 양성하였다. 이 사역자양성소를 통해서 배출된 졸업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3]

[표 19] 사역자양성소 졸업생 명부

회 수	일 자	졸업자 명단	인원
제8회	1939년 4월 9일	이성의, 최옥인, 남창우, 김덕신, 김덕순, 김길준, 김공준, 전가혁, 박구현, 김완식, 김용은, 민영숙, 김용호	13명
제9회	1940년 4월 14일	신종균, 안명원, 김동규, 윤형진, 오영희, 이	7명

[1]이여식, "사역자양성소에 대하여," 교회지남, 1937년 7월호, 9.
[2]상게서.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881.

		봉자, 이영숙	
제10회	1941년 3월	안태봉, 한기조, 김경두, 이성찬, 김성환, 남영우, 이기수	7명
제11회	1942년 3월 29일	이지찬, 님기억, 강원호, 이경일, 김태극, 조경자, 박종분, 김기련, 김온자, 김태화, 김옥련, 한몽필, 유창현	13명
폐교시 재학생	1942년 5월 중순	하덕헌, 강병욱, 이병영, 유준현, 임태경, 장도훈, 이홍섭, 이균호, 김상호, 이세형, 박영혜, 현기순, 전재희, 정충실	14명

4. 일제의 교육 정책과 사역자양성소의 폐교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의 사업은 역사적으로 불운한 시점에 개교되었다. 그 전에 조선합회신학교가 서울로 옮겨진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재림교회의 지도자 양성과정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한 발전을 토대로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학교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5년 만에 다시 사역자양성소를 시작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실현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방해하였다. 그 외부적 요인이란 바로 일제의 강력한 교육탄압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1) 일제의 교육 탄압정책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가 개교되던 해는 일제가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교육 기관들을 탄압하던 시기였다. 전편에서 의명학교의 역사와 함께 이미 다룬 것처럼 신사참배 문제는 여러 기독교계 학교들을 폐교하도록 만들었다. 1931년의 만주 침략에 이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날 즈음, 관동군 사령관 출신인 미나미 지로(南次郎, 6대 총독, 1936-1942)총독은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내선일체의 본류를 이루는 다섯 가지 정책 강령을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교학진작(敎學振作)이었다. 일제는 이 교학진작이라는 강령을 통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일본 예속화를 꾀함으로써 조선을 통제하고 나아가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었다.[1] 이러한 일련의 황국신민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제는 여러 교육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 첫째는 이미 언급한 신사참배였다.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한 신사참배의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1]손인수, 637.

었다. 사립 기독교계 학교들은 특별히 신사참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사참배와 더불어 일제는 1937년 10월 2일에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제정하여 모든 관공서와 회사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에서도 조회 때마다 외우게 하였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수신'(修身) 시간을 두어 황실과 일본국가에 대한 관념 등을 가르침으로써 황민화 정책을 강화하였다.[1] 이와 더불어 1939년 11월에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하였다. 형식적으로 창씨개명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했지만, 응하지 않으면 각급학교 진학을 막고 직장에서의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2]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민족정신을 빼앗고 동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미나미 총독 시절에 일제는 이러한 일련의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면서 1922년에 개정된 조선교육령을 다시 황국신민 교육의 틀에 맞춰 재정비하기 위해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 보통학교의 명칭을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명과 동일하게 각각 소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6년제 소학교로 승격시키지 못한 채 4년제 소학교로 존속"시키고,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화하고 "조선어는 수의과목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3] 이는 결국 "황국신민육성의 철저를 목표로 교명을 일본의 교육과 동일하게 통일,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조선어과는 수의과목으로 전락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4] 일제의 황민화 정책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교육령에 따라 일제는 1938년 4월부터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 조선의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만을 사용하게 한 이 교육령은 많은 사립학교들에게 존폐의 위협을 가했다. 유럽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중일전쟁의 양상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제는 황민화 정책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법령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황민화 정책을 더욱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각급학교들이 폐교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데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 역시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폐교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실시와 함께 황민화 정책을 가속화하던 일제는 1941년에 이르러서는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를 전시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는 전문학교 이상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것

---

[1]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247, 248.
[2]상게서, 250-252.
[3]"조선교육령(1938. 3)." 조선총독부 관보 號外, 1938년 3월 4일자, 1. 2.
[4]유봉호, 211.

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1941년에는 3개월(12월 졸업), 1942년에는 6개월(9월 졸업)의 수업연한을 단축하였다. 이는 "소위 시대의 전운에 따라, 또 현하(現下) 인적 자원의 요구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으로 하여금 1년을 빨리 대동아공영권 확립 및 직역봉공(職域奉公)에 매진케 한다"는 이유에서였다.[1] 이로 인해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결국 1943년에 이르러서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아예 전시체제 하의 학교 운영을 노골화하였다. 이는 제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이래 '체육훈련 실시요강'(1943. 4. 26), '학도 전시 동원체제 확립요강'(1943. 7. 22),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령'(1943. 10.20) 등이 연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 제4차 조선교육령은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간소화, 학교 수업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조속히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교육 체제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일제는 1937년에 중일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황민화 정책과 전시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 개정령을 통해 민족말살 정책과 더불어 많은 사립학교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학교를 단지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히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고, 그로 인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저들은 이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까지 식민지 내에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러한 교육 정책과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은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 및 교육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 궁극적인 결과가 조선합회사역자양성학교의 폐교와 나아가 한국 재림교회의 해산으로 나타났다.

2) 사역자양성소의 폐교(1942)

재림교회 신학교 교육사업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운영되어 왔다. 물론 한국인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책임은 모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맡았다. 그러나 이미 여러 상황 속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진하 목사, 이여식 목사, 이성의 목사 등 한국인 지도자들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나아가 유학 등의 기회를 통하여 교육사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정부분 재림교회의 교육 사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교육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인물이 바로 이성의 목사였다. 이성의 목사는 1940년 11월에 열린 합회 평의원회에서 합회 교육부장 겸 사역자양성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성의 목사

---

[1]손인수, 640.
[2]유봉호, 238.

가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중심역할을 맡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철수에 따른 결과였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부터였다. 일제는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대동아공영권을 앞세워 아시아를 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 사회에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전선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및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영미 등 서구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미국은 1939년 7월에 미일통상항해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응하였고 이에 일본은 미국 침략을 획책하고 아시아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다.[1] 이로 인해 1940년부터 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선교사 철수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1942년 12월 8일 이전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다. 그 때까지 철수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포로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야만 했다.[2]

이러한 정세에 따라서 재림교회 선교사들 역시 1940년 11월부터 대총회의 지시에 의거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우선 11월 16일에 네 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한국을 떠났으며, 23일에는 1938년에 내한해 활동하던 제임스 리(James Lee, 李濟明, 하워드 리 목사의 아들) 목사 부부가 필리핀으로 전근되어 갔고, 12월 10에는 왕거린 여사가 귀국 길에 올랐다.[3] 당시 합회장이었던 와츠 목사는 그 해 12월 초에 원동지회 평의원회를 위해 싱가폴에 갔다가 이듬해인 1941년 1월 27일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2월 4일부터 14일까지 합회 평의원회를 열고 원동지회의 결의에 따라 당시 부합회장이었던 최태현 목사에게 합회장직을 인계하고, 이틀 후인 16일에 경성의료원장 루 의사와 같이 본국을 향해 조선을 떠났다. 아울러 서기 겸 회계를 담당했던 쉘(H. E. R. Schell, 설호만)과 바르 목사의 가족들은 2월 25일에, 교육부장 겸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장이었던 클린턴 리 목사는 26일에 필리핀 마닐라로 전근되어 갔다.[4] 이렇게 해서 1941년 2월 말까지 한국에 있던 모든 미국인 선교사들이 철수함으로 한국 재림교회의 운영은 본방인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성삼육원장을 맡고 있던 이성의 목사는 1940년 11월 18일부터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클린턴 리 목사를 대신해 교육부장과 사역자양성소장을 맡게 된

---

[1]김승태,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한국 기독교계의 대응: 1931-1945,"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2006): 115-117.

[2]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410-414. 이 자료에는 평양신학교를 이끌었던 선교사들의 철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3]교회지남, 1941년 2월호, 16.

[4]교회지남, 1941년 3월호, 16.

다.[1] 그러나 이성의 목사는 이듬해인 194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본부예배당에서 개최된 제12회 합회 총회에서 중선대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임지를 옮겼고, 사역자양성소는 합회장 최태현 목사가 겸임하게 되었다.[2] 그러나 이미 설명한 대로 일제의 전략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재림교회의 교육기관들이 정상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특별히 사역자양성소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해 폐교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모든 교육체제가 전시교육 체제로 전환된 1942년 3월에 사역자양성소는 제11회 졸업식을 거행한 후, 14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하던 중 일본 경찰의 강압으로 5월 중순에 폐교되었다. 이때 일제가 사역자양성소를 폐교시킨 명분은 교과서와 강의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3] 결국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는 제3차 조선교육령의 희생양이 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사역자양성소와 같이 폐교된 학교들은 많았다. 특별히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그 후 학도 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을 발표한 이후 조선총독부는 대학과 전문학교 등을 전시체제로 재편성하였는데 이때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일제는 우선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보성전문, 연희전문, 혜화전문, 명륜전문 등 사립전문학교의 경우에 학생 모집을 정지시킨 후, 보성전문학교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연희전문학교는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강제 재편하였으며, 혜화전문학교와 명륜전문학교는 아예 폐교시켰다.[4] 조선합회사역자양성소의 폐교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 아래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 신학교의 교육사업은 1917년 9월에 순안에서 시작해 1931년 4월 서울에 정착한 이후 1942년 5월 폐교될 때까지 11회에 걸쳐 1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후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육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폐교된 학교들 중에는 해방 이후 회복된 학교도 있었고, 회복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 재림교회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신학교는 전자에 속했다. 해방 후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해산된 교회의 재건과 더불어 교육사업을 재건함으로써 삼육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위대한 행보를 이어갔다. 사역자양성소는 이렇게 해서 잠시 문을 닫게 되었지만 다음 시대에서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감동적인 역사를 서술하기에 앞서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가 일제의 마지막 핍박 속에서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야겠다.

---

[1]교회지남, 1941년 1월호, 16.
[2]이영린, 75;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68.
[3]이영린, 155.
[4]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264.

제4장 교회의 해산
(1943~1945)

재림교회 역사가인 이영린 교수는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1941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를 재림교회 역사에서 '수난기'로 구분하였다.[1]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전 아시아를 전장으로 몰아넣었다. 중일전쟁에서 중국영토의 주요 부분을 점령한 후 태평양 전쟁을 통해 세계적인 초강대국인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인 일본은 전쟁 초기 6개월간은 우세한 전력으로 미국 침공작전의 대부분을 실현시켰다.[2] 그러나 미드웨이(Midway) 해전을 기점으로 전세는 급격하게 미국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전 식민지 제국 내에서 병력과 전쟁 물자를 공출해 전세 만회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조선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중의 하나였다. 일제는 부족한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 전역에서 많은 물품들을 공출해갔다. 특히 전쟁무기 생산을 위해 쇠붙이를 모두 공출해 갔는데 교회의 종탑까지 걷어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군수물자 확보보다도 더 잔인한 것은 젊은 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었다. 일제는 1943년부터 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해 수많은 젊은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 몰았다.[3] 여기에 젊은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력 수탈을 자행하였다.

일제가 전시비상 체제를 선포하여 조선을 수탈하던 이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한 대단했다. 경술국치 이후에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근대화와 교세확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기독교는 1940년대 이르러서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자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강압정책을 실시한 것이었다. 특별히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는 일제의 강압적 종교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교회가 해산되는 비운을 경험한 대표적인 교단이 되었다.[4]

---

[1]이영린, 74.

[2]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반도(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뉴질랜드 및 태평양 군도 대부분을 지배하고 대동아공영권의 대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듯 보였다. 이홍렬, "미・일 전쟁의 분기점: 미드웨이 해전," 평화 1, 2(1989): 131-141참조.

[3]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265.

[4]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82, 383.

1. 재림교회의 형편

1941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한 이후 한국 재림교회의 지도부는 본방인들에 의해서 꾸려졌다. 교회의 대표는 와츠 목사와 함께 합회 부회장으로 봉사하였던 최태현 목사가 맡게 되었고, 서기 겸 회계는 김상칠, 선교부장은 오영섭, 출판부장은 임종해, 시조사 사장은 김창집, 경성요양병원장은 정사영, 서선대회장은 조치환, 중선대회장은 정동심, 남선대회장은 정붕상, 북선대회장은 김항모 등이 맡아 선교사 이후 시대를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본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당시 한국 재림교회의 재정자립도는 30%정도 밖에 안 되었다.[1] 나머지 70%는 세계본부인 대총회로부터 지원금(허급액)을 받아서 교회사업을 운영하던 시기였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들의 철수와 본방인 체제 운영이란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립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선교사들의 철수가 일제의 미국 침략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별히 일제는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부흥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반도 민중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도 있지만" 일제의 "국체 관념과 대립한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종교정책을 추진하였다.[2] 이처럼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기독교파들에 대한 곱지 않은 인식을 가진 일제는 결국 미국과의 전쟁이 구체화되자 선교사들을 철수시키고 교회 역시 본방인들 중심으로만 운영하게 하는 강압적인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런 일제의 종교정책 때문에 한국 재림교회는 교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본방인 지도 체제를 갖춘 후 지도부는 1941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본부예배당에서 제12회 합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총회 대표들은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합회의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안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사역자 수를 줄일 것(최소한도 11명), 둘째는 사역자들의 봉급을 줄일 것(각자 한달 씩의 월급을 희생하도록 할 것), 셋째는 교회 건물과 토지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팔 것.[3] 이 세 가지 안들 중에 첫째 안은 11명의 감원대상 선정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지도자들은 둘째 안과 셋째 안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채택하기로 결의하였

---

[1]교회지남, 1939년 12월호, 93; 교회지남, 1940년 1월호, 48; 2월호, 4-6, 48; 이영린, 73.
[2]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 325.
[3]이영린, 75; 이여식 편,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4.

다. 사실 이 때 선교사들의 사택과 순안병원의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그 건물들을 팔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건도 나왔지만 결의되거나 실행되지는 않았다.[1] 어쨌든 총회에서 논의된 재정문제 해결책과 관련된 안건은 당시 재림교회가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교회의 재정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대우가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은 자명했다.

2. 일제의 탄압과 재림교회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재림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일제의 본격적인 탄압정책으로 인해 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였다. 선교사 철수 방침으로 사실상 종교탄압의 서막을 시작한 일제는 전시체제 아래서 보다 더 강력한 수탈 및 탄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강력한 탄압정책으로 인해 재림교회는 교회가 해산되기까지 많은 수난을 겪어야 했다.

1) 화강리 사건(1941)

그 첫 번째 교회 탄압 사건이 바로 화강리(花江里) 사건이었다. 1941년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에 위치해 있던 재림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집회에는 합회와 중선대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때는 일제가 전시 체제 하에서 미국 친화적인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집회에도 정사복 경찰들은 물론 경찰의 앞잡이들도 집회를 감시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설교를 맡은 중선대회장 정동심 목사는 일본 외상 마츠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바티칸 방문을 언급하면서 임박한 재림의 준비를 호소하였다.

사실 이때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앞세워 동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및 이탈리아와 더불어 공동 군사동맹 체결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일로 일본의 외상이었던 마츠오카는 그해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로마를 방문했고, 그때 바티칸에도 들러(4월 10일) 교황 피우스 12세를 만나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 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정동심 목사는 때가 가까웠다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예배 도중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은 중선대회장 정동심 목사 외에 합회 선교부장 오영섭, 박원실, 오석영, 유철준, 이성찬 등과 일반 신자 대표 오대식, 김병두 등 8명

---

[1]이영린, 75.

이었다. 이들은 모두 보안법 위반과 독립운동 종용의 죄로 기소되어 그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청양경찰서에 구속되었다.[1] 이들 중 7명은 기소된 지 100일 만인 7월 19일에 석방되었지만, 정동심 목사는 3심에서 6개월 형을 받아 이듬해인 1942년 2월 19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목회자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한 사실 하나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일제가 교회를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때 개신교 각 교단의 지도자들도 몇 가지 이유로 일제의 경찰에 검거되어 투옥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로교회에서는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이기선 목사, 박관준 장로 등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다.[2] 아울러 침례교회에서는 이종근 감목이 성결교회에서는 한정우와 박윤성 등이 각각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 및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재림교회의 화강리 사건과 비슷한 역사적 정황을 보여준다.[3] 화강리 사건과 같은 기독교 지도자 체포 및 구금 사건은 1940년대에 이르러 일제가 식민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일제의 기독교 설교자들에 대한 검거 및 탄압은 당시 일제가 취한 아주 일반적인 탄압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 스마나가(增永正一)가 1940년 6월에 경정부장회의에서 한 훈시와 하급법원에 보낸 "시국 관계 사범 처리에 관한 통첩"(1939년 5월) 및 1940년 10월 사법관 회의에서 한 훈시 가운데 나타난 기독교 관련 부분을 참고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스마나가 검사장은 기독교를 일본의 국체 관념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단체이므로 "엄밀히 사찰하여 반국가적 교리 교설을 하는 것을 간파할 때는 지체 없이 검거 탄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불경, 불령의 목적을 가진 종교 단체의 운동은 그 해독이 일반 좌익운동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여 검거 탄압하도록 지시하였다.[4] 정동심 목사를 체포한 화강리 사건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명백한 기독교 탄압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2) 정기간행물 폐간(1941)

일제의 기독교 탄압의 또 한 사례는 정기간행물을 폐간시킨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종교 탄압의 형식을 띄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 일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을 탄압

---

[1]매일신보, 1941년 4월 3일자. 이영린, 74, 75.

[2]최훈, 101.

[3]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141; 구라타 마사히코,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서울: 기독교문사, 1991), 108, 109.

[4]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회보(思想彙報), 제23호, 1940년 6월호, 1-14; 상게서, 제25호, 1940년 12월호, 1-8; 김승태, 330-334.

하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국내에서의 언론활동을 허용하였다. 이에 1920년 민간언론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시사신문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언론 허용방침은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탄압 형태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탄압으로 20년만인 1940년 8월 1일에 폐간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일제의 언론탄압의 기조는 기독교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정기간행물을 폐간시키는 상황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1918년에 평양신학교의 기관지로 발간된 신학지남(神學指南)이 평양신학교의 폐교(1938년 6월 18일)에 따라 1940년 10월 22일에 제22권 제5호를 끝으로 정간되는 비운을 맞이했다.[1] 성결교회의 교단 기관지인 활천(活天) 역시 일제의 언론탄압에 의해 1942년 12월에 통권 24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으며, 교단신학교인 경성신학교마저 1943년에 폐교되기에 이르렀다.[2] 이처럼 일제는 기독교단에서 운영하는 정기간행물들과 교단의 신학교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통해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성결교회와 재림교회는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밟았다. 평양신학교의 경우는 신사참배 반대로 자진 폐교하였기 때문에 학교가 먼저 폐쇄되고 그 여파와 일제의 압력으로 기관지인 신학지남이 정간되었지만, 성결교회는 재림교회의 경우처럼 기관지가 먼저 폐간되고 곧바로 교단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재림교회의 경우는 성결교회보다 조금 앞서 1941년 4월에 기관지가 폐간되고, 1년 후인 1942년 5월에 교단신학교가 폐교되었다. 이는 아마도 성결교회가 재림교회보다 교세가 약간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는 작은 교단부터 서서히 박해하여 교단을 해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런 정책에 의거해 재림교회와 성결교회를 순차적으로 박해하여 기관지와 신학교를 없앤 뒤, 결국 이 두 교단을 차례로 해산시키게 된다.

1941년에 폐간된 교회지남과 시조는 재림교회의 공식 기관지로 교회지남은 교인들을 위해, 시조는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선교 잡지이다. 재림교회의 출판사업은 선교, 의료, 교육 사업과 함께 4대 사업의 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단들이 그렇듯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도 복음사업을 시작하면서 출판사업을 함께 착수하였다. 재림교회에서 출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보다 4년 전인 1905년 가을에 일본에서 개최된 수양회에 참석했던 김승원과 김규혁이 일본에 있던 재림교회 인쇄실에서 2년간 인쇄업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 출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08년에 순안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월간 잡지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고 스미스 목사를 편집인으로 임명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월간잡지

---

[1]총신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420-434.
[2]안수훈, 한국성결교회 성장사, 176.

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1909년 3월에 일본미션에서 보내준 인쇄기계를 받아 순안학교 한 방에서 인쇄를 시작하여, 안식일학교 교과인 요한1서 연구 5,000부, 안식일학교 조명록, 교회 녹명책 등을 발행하면서 인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1]

본격적으로 출판사업을 시작하면서 월간 잡지 제작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한국 재림교회는 1910년 10월 20일에 드디어 세 천사의 기별로 명명된 월간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 잡지가 나오기기까지 스미스 목사에 이어 편집인 책임을 맡은 샤펜버그는 한덕헌, 김승원 등과 더불어 출판사업을 진행하면서 1910년 7월에 특별한 기별이라는 단행본 잡지를 발행했고, 두 달 후인 9월에 말세복음보(8면)라는 이름으로 정기간행물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잡지가 총독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자 제호를 세 천사의 기별로 바꾸고 4.6배판 크기의 8면짜리 월간지를 본격적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당시 세 천사의 기별은 2전 5리였다.[2] 이 잡지가 발간될 당시 조선의 출판사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별히 언론의 경우 김창집 선생의 말처럼 "신문이라고는 (매일신보) 하나밖에 없었고, 잡지도 1, 2종이 있었으나 얼마 안가서 폐간"되었다.[3] 이런 상황에서 활판기계를 도입해 월간지를 만들고 각종 인쇄물을 만들었던 순안의 인쇄 방은 매우 혁신적인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세 천사의 기별은 1912년에 새로 지어진 서울 회기리의 출판소로 옮긴 후 지속적으로 출판되었고, 1917년에 이르러 시조월보(時兆月報)로, 1923년에는 시조(時兆)로 그 명칭을 바꿔가면서 발전했다. 재림교회 공식 월간 잡지의 명칭을 시조로 한 것은 미국에 있는 본부에서 출판하는 월간 잡지 명칭인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와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잡지였기 때문이었다. 이 잡지의 명칭을 따라 중국에서 출판된 자매지가 바로 '時兆月報'였고 한국 재림교회도 자매지의 성격을 살려 세 천사의 기별을 시조월보로 바꾸었다가 후에 그냥 시조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4]

시조와 더불어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인 교회지남(敎會指南)도 1916년 7월에 월간 잡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교회지남은 창간 이후 교회본부의 행사, 결의사항과 시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각 교회와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방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국 교회에 알리는 방편으로서" 창간된 재림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월간지였다.[5] 시조가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의 자매지였다면, 교회지남은 리뷰 앤드 헤럴드(Review and Herald)의 자매지였다. 이 두 월간지는 전

---

[1]*Review and Herald*, January 14, 1909, 16; 이영린, 157-159.

[2]*Review and Herald*, November 24, 1910, 9; 시조, 1939년 10월호, 8.

[3]시조, 1939년 10월호, 8.

[4]시조월보, 1920년 12월호, 26; 여기에서 버터필드 목사는 세 천사의 기별이 1918년 정월에 시조월보로 개명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1917년이었다.

[5]이영린, 161.

세계 재림교회가 공통적으로 만드는 정기간행물들이었다. 재림교회는 교회지남과 시조를 정기적으로 간행함으로써 신앙정신을 소개하여 발전시켰다. 그 잡지들은 한국 재림교회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생동감 있는 정신이었다. 이 역사와 정신을 빼앗기 위해 일제는 1941년 4월에 시조와 교회지남을 폐간시켰다.

일제가 이 두 잡지를 폐간시킨 이유는 이 잡지에 담겨 있는 기별들이 전시체제 하에서 식민지역의 국민들의 뜻을 내선일체로 묶어가려던 자신들의 방침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일제는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회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들은 미국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잡지들을 감시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탄압을 일삼았다. 특별히 이 시기에 각 기독교단들이 전파한 기별 가운데 말세, 재림 등과 같은 종말론적 기별들에 저들은 민감하게 대응했다. 이즈음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종말론적 기별을 전파하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특별히 종말론적 기별이 강했던 재림교회와 성결교회 등은 그 핍박의 강도가 더 높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내용들이 재림과 종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조와 교회지남은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종말론적 기별을 이유로 이 잡지들을 폐간시키자 교회 지도자들은 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월간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폐간된 지 두 달 만인 6월에 시조 잡지는 건강생활(健康生活)이란 이름으로 속간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교회지남을 대신한 교회지침(敎會指針)이 다시 만들어졌다.[1] 그러나 이것마저도 곧이어 몰아닥친 교회 해산의 비극 속에서 또다시 정간해야만 하는 역사적 운명 앞에 놓이고 말았다. 결국 일제는 단지 내용을 빌미로 월간 잡지들을 폐간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3) 신앙정신의 말살

이 시기에 일제가 행한 교회 핍박의 또 다른 형태 중의 하나는 교인들로 하여금 신도실천(臣道實踐)을 강조한 것이었다. 1941년 들어서 일제는 "일억일심, 저축보국, 직역봉공, 신도실천, 멸사봉공" 등의 표어 아래 솔선하여 일본의 신민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신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전몰자들을 위한 묵도, 황국신민서사 제창, 국기게양, 궁성요배, 국방헌금, 위문대 파견 등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조선인들도 제국의 신민인 이상 그

[1]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서울: 현암사, 2004), 549.

신민의 길, 즉 신도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이러한 신도실천의 구호를 교회에서도 강조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성결교회의 활천, 재림교회의 교회지침 등에 위의 표어를 강제로 삽입하게 하여 교인들의 의무감을 부추겼다. 이러한 일제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은 공물 공출 등 부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진리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활은 매우 고달픈 것이었다.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강압적인 현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질적인 핍박의 형태가 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설교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찬미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다. 재림, 종말, 승리 등과 관련된 찬미는 아예 삭제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1]

일제가 재림교인들의 신앙정신을 말살하고 실질적인 핍박을 가했던 일은 1941년에 폐간된 교회지남을 대신해서 4개월 만에 복간된 교회지침에 자세하게 나타난다. 8월에 복간된 교회지침은 일제의 관리 하에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시국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에는 "충국애국의 정신으로 신도실천(臣道實踐)하라"는 취지하에서 국가 의식에 대한 충성, 즉 묵도, 황국신민서사, 국기게양, 궁성요배, 국방헌금, 위문대 파견 등에 대한 의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 재림교인들은 "궁성요배와 국가합창과 천황폐하 만세3창, 이 모든 의식 순서는 즉 국가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는 신자와 불신자간에 반드시 할 일"이라는 기록을 읽게 되었다.[2] 이 글을 읽으면서 재림신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다. 당시 재림교회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명준 전도사의 전기에 보면 이러한 국가의식 준수의 강요로 "거룩한 예배가 때 묻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3] 일제의 교회 탄압이 교인들의 신앙정신에 끼친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 주는 기록이었다.

일제의 신앙정신 말살 정책은 모든 기독교 교단에게 동일하게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는 "재림, 말세, 심판 등의 교리"를 신조에서 제했고, "시국에 비추어 근로봉사의 의미로 일요일 예배를 한 번씩 집회하고 한 번은 축소"하였으며, "철물 헌납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종을 국가를 위해 헌납"하였다.[4] 이 내용은 양주삼 등 감리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조선감리단의 친일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 다만 이 기록에서 우리

1일제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구라타 마사히코의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를 참고하라. 구라타 마사히코, 108-117.

2최태현, "시국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지침, 1941년(소하 16년) 8월호, 2-4.

3이경송, "이명준 전도사의 전기,"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165.

4"조선감리교회단의 혁신안 실천 요의(要義)," 김승태, 372, 373. 이 자료는 1943년 9월 4일 조선감리교단 전 사무국장(이동욱)의 책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반민특위재판기록> 영인본으로 보관되어 있다. 반민특위재판기록, 8(다락방, 1993 영인), 331-379 참조.

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일제가 신앙정신 말살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의 별지에서 조선감리단은 충군애국 정신으로의 사상 선도, 일본학 보급 진흥을 도모하는 교학 쇄신, 황도선양 및 방공 국방에 힘쓰기 위한 사회교육, 군사후원 등을 혁신조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친일적 요소들이 교회에서 선언되었다는 것은 당시 일제가 기독교 신앙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 모든 핍박의 목표는 결국 기독교 정신의 말살, 나아가 기독교 자체의 말살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3. 교회의 해산(1943)

화강리 사건으로부터 교회의 정간지들의 폐간, 나아가 신도실천의 강요 등 1941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회를 향한 일제의 궁극적 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적인 과정이었다. 그 과정의 궁극에 교회의 해산이 있음을 지나온 역사가 말해 준다. 재림교회가 교회 해산의 비운을 맞이한 것은 1943년 12월이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제는 이미 나름대로의 종교 정책을 확립해 교회 해산의 절차를 진행시켰다.

1) 일제말기의 기독교정책

일제 말기의 조선 기독교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자료 하나가 1940년에 총독부의 기관지인 '朝鮮'에 실렸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직원이었던 신포 조지(神寶長治)가 "조선에서 기독교의 활동"이란 제하로 실은 이 자료에는 일제가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내선일체를 방해하는 주요 단체로 판단하고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을 가졌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종교단체법을 시행(1940년 4월 1일)하여 종교를 국가가 통제하였다.[1] 그리고 이 법을 빌미로 조선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기독교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종교들의 세부 통계작업을 통해 기독교의 활동 상황을 분석하였다. 신포 조지는 이 분석에서 "조선에서 종교는 재래의 조선 불교, 일본에서 전파된 신도 및 일본 불교, 외국으

---

[1]일제의 종교단체법은 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 개정 1940년 3월 29일 법률 제25호로 발의되었다. 戸村政博 編, 神社問題とキリスト教(東京: 新校出版社, 1976), 400-405.

로부터 전파된 기독교와 함께 이른바 유사종교의 각종 단체 등 다종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런 종교 단체에 가입한 신도의 총수 120만 명(2천3백 만 인구 대비 5%) 중에 기독교 신도수가 절반에 가까운 50여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 이 자료에는 1940년 당시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기독교단들의 계통별 통계가 자세하게 분석되어져 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인된 기독교, 즉 구교 두 교파, 개신교 19개 교파 등 21개 교파의 신도수는 총 500,842명인데 그 수를 각 계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표 20] 기독교 계통별 신도수(1938년 말)

구 분	교 파 명	1929년 말	1938년 말	증감수
구교-외국인계 2	천주공교	59,392	122,181	62,789
	러시아정교회	745	111	-634
	계	60,137	122,292	62,155
신교-외국인계 9	조선예수교장로회	174,402	280,081	105,679
	기독교조선감리회	47,895	54,286	6,391
	성공회	7,065	7,713	648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4,970	8,468	3,498
	동양선교회	3,266	12,052	8,786
	구세군	4,532	6,379	1,847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	445	445
	오순절교회	-	192	192
	기독교회	-	290	290
	계	242,130	369,906	127,776
신교-일본인계 6	일본기독교회	1,843	1,724	-119
	이본메소디스트교회	1,475	1,868	393
	알본조합기독교회	955	756	-197
	기요메교회	1,139	91	-983
	일본성교회		65	
	기독동신회	13	83	70
	계	5,425	1,922	-836
신교-조선인계 4	조선기독교회	985	1,922	937
	조선회중기독교회	3,968	713	-3255
	하나님의교회	-	1,250	1,250
	그리스도의교회	-	170	170
	계	4,953	4,055	-898
총 계		312,645	500,842	188,197

[1]신포 조지(神寶長治), "조선에서 기독교의 활동," 김승태, 315, 316. 이 자료는 神寶長治, "조선에서 기독교의 활동," 조선, 299호, 1940년 4월호, 84-96쪽에 있는 내용을 김승태가 번역하여 자신의 종교정책사 자료집에 첨부한 것임.

[2]상게서, 317, 321.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계와 조선인계 기독교단들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계 교단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황민화 정책에 외국인계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책의 요지는 바로 주요 교단들은 하나로 통합하고, 군소 교단들은 해산시킨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주요 기독교단들을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는 조선기독교연합회를 결성한 것이다. 일제의 강력한 종교 탄압과 분열 공작으로 인해 1938년 2월에 장로교회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기독교의 친일 정책이 가시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회자들은 평양에서 모여 기독교 친목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독교와 연계하여 부일적 친일활동을 전개하는 모임이었다. 그해 5월에도 서울에서 '경성기독교연합회'라는 어용단체가 조직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조정해 결국 1938년 7월 '조선기독교연합회'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였다.[1] 이 단체의 결성의 취지와 목표를 신포 조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조선에서 기독교는 … 가끔 우리 국체 관념과 대립한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인데, 지나사변(중일전쟁) 발발 이래 유력한 조선인 목사 및 교역자는 시국의 중대성과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사명을 잘 인식하고 종래의 행위와 태도를 버리고 내선기독교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더욱더 단결을 굳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쇼와 13(1938)년 5월 8일 경성 부민관에서 조선기독교연합회 발회식을 거행하였는데, 전 조선으로부터 참가한 목사와 신도 유지들 1,700여 명의 다수에 이르러 성황리에 마쳤다.[2]

일제의 기독교 어용화 정책으로 추진된 조선기독교연합회는 결국 1938년 7월 7일에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에 맞춰 경성부 장곡천정(長谷川町) 공회당에서 미나미 총독을 모신 가운데 제1회 대회를 개최함으로 어용 기독교단체로 등극하였고, 그 자리에서 '보국정성'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강압과 분열, 회유 등을 통해서 순수 기독교를 해체하고 어용단체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던 공작 정치의 결과였다. 이렇게 해서 50개 지방 연합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선기독교연합회는 일본기독교연맹과 제휴하여 부일 활동에 참여하였다.

장로교회를 조선기독교연합회를 통합해 버린 후 일제는 곧바로 두 번째로 큰 기독교단인 감리교회의 어용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감리교회도 장로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 문제 등을 계기로 탄압과 분열, 회유 공작에 말려 양주삼 총리사의 지도하에

---

[1]한국기독교사연구회, 302.
[2]신포 조지(神寶長治), 325.

부역의 길을 걷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이런 감리교회의 상황을 이용해 기독교조선감리회와 일본메소디스트교회와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1939년 10월 18일에 가나가와(神奈川)현 가마쿠라(鎌倉) 교회에서 이 두 단체의 연합체인 '기독감리회'를 창립하게 만든다.[1] 기독감리회는 조선기독교연합회와 비슷한 형태의 감리교회 단체였다. 이 단체를 결성한 후 조선감리교회는 1940년 총리원 이사회를 통해 "국체의 진정신과 내선일체의 원리를 실현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신체제에 순응"하기로 한 혁신안을 결의하여 일제의 탄압에 순응하였다.[2]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이어 조선 구세군도 1940년 11월에 그 명칭을 조선 구세단으로 바꾸고 일본 구세단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조선 성공회 또한 그해 12월 일본정신에 따른 교회 운영 방침을 표방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였다.[3] 1940년대 들어서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기독교 교단들의 행보는 일제가 중심 기독교단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결과들이었다. 이 같은 일제의 의도는 1940년 9월 일본기독교연합회 회장이자 일본메소디스트교회 감독이었던 아베(阿部義宗)가 방한하여 "기독교 신체제"란 주제 하에 기독교의 황민화와 교파 합동을 역설했던 간담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4] 여기서 말하는 교파합동이란 일제가 한국교회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일본 예속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19명), 감리교회(9명), 성결교회(4명), 일본 기독교구회(4명) 구세단(4명) 등 5대 교파의 대표들이 1942년 1월에 새문안교회에서 모여 "교파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모임에서 대표단들은 일제의 지도하에 논의를 통해 그 해 7,8월경에 신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는 등 통합을 향한 일정을 세웠지만 통합에까지 이르는 데는 실패하였다.[5] 기독교단의 통합이 실패하자 일제는 각 교파들을 개별적으로 일본 기독교에 예속시켜 버리고 군소 교단들을 해체시켜 버리는 더 강력한 탄압정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1943년 5월에 장로교회는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그해 8월 감리교회는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단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재림교회는 1943년 12월 28일에, 성결교회는 그해 12월 29일에 해산되었다.

2) 지도자들의 검거와 최태현 목사의 순교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재림교회의 해산은 1940년대 들어서 일제가 취한 일련의 종

---

[1]일본메소디스트교회 대표 아베 외 6명이 기독교조선감리회 대표 정춘수 외 6명과 가마쿠라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신포 조지(神寶長治), 328, 329.

[2]매일신보, 1940년 10월 4일자.

[3]매일신보, 1940년 11월 10일자; 1940년 12월 12일자.

[4]매일신보, 1940년 9월 20일자;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304, 305.

[5]상게서, 305, 306.

교 정책의 결과였다. 일제는 교단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교세가 비교적 적은 교단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탄압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였다. 일제의 교회해산 정책은 치밀한 전략 아래 이루어졌다. 재림교회를 비롯해서 성결교회와 침례교회 등이 해산의 비운을 맞이했는데 이 교회들의 해산 과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해산 전략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제는 각 교단들의 지도자들을 검거하여 협박과 고문으로 온갖 혐의를 씌운 후 교회 해산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 해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가 순차적으로 해산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41년에 화강리 사건, 정기간행물 폐간, 신도실천 강요 등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던 일제는 1943년 2월 결국 교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 일이 발생하기 3주 전인 1943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회 지도부는 서울 본부예배당에서 일제하에서의 마지막 총회였던 제13회 합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래 총회는 연말에 개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합회장이었던 최태현 목사에 대한 일부 불신임 문제가 발생하여 최태현 목사가 사의를 표명하게 되자, 총회가 부득불 1년 정도 앞당겨 개최된 것이었다.[1] 이 총회에서 교회 지도부가 전면 개편되었는데, 최태현 목사를 대신해서 젊은 오영섭 목사가 합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중선대회장이었던 이성의 목사가 부회장으로 박창욱 목사가 서기 겸 회계로 각각 선출되었다.[2]

그런데 이 총회에는 일제가 어떤 형태로 관여했던 것 같다. 총회가 끝난 후 매일신보에는 "안식교도 신발족, 기독교혁신에 호응"이라는 제목 아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의 총회 소식을 전하였다.[3] 여기에서 "기독교혁신에 호응"했다라는 것은 일제가 1940년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그 밖의 구세군, 성공회 등을 협박 및 회유하여 총독부의 국책 수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한 것과 동일한 압력을 재림교회에게도 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림교회는 이런 일제의 압력과 공작에 의해 1년 앞당겨 총회를 개최하였고, 최태현 목사 대신 젊은 오영섭 목사를 합회장(일제의 표현에 따르면 총리)에 선출한 후, 일제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제의 공작이 궁극적으로 교회 해산을 위한 수순이었음을 그 당시의 교인들은 알지 못했다.

총회가 끝나고 난 지 3주가 지난 2월 4일, 드디어 서울의 종로경찰서 형사들이 합회에 들이 닥쳐 최태현, 오영섭, 이성의, 김상칠, 박창욱 등 신구 임원 5명을 검거 구

---

[1]이영린, 76.
[2]교회지남, 1954년 10월호, 21; 이영린, 76.
[3]매일신보, 1943년 2월 3일자.

속하였다(김례준 목사는 최태현 목사 순교 후 추가로 검거됨).[1]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거 사유는 보안법 저촉(간첩 행위)과 허급액 횡령(투고에 의한 것임) 등이었다. 지도자들이 투옥된 후 교회의 안정을 위해 나머지 지도자들은 합회장 대행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임종해(수석), 고두칠, 곽종수 3인을 대행위원으로 뽑았다.[2] 이들은 신태악 변호사를 통해 구속된 지도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아울러 일본 대판산업신문 선일만지사를 경영하던 심정섭 장로도 일본인 변호사인 다자이(太宰)를 통해 지도자들 석방을 위해 노력하였다.[3]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자 김상칠 장로의 장남인 김영준 선생은 일본 동경에 있는 연합회장 오쿠라(小倉) 목사를 초청해 지도자 구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지도자 석방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김영준 선생이 투옥되었고, 오꾸라 목사 역시 일본에서의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 구속되었다.[4]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검거가 단순히 어떤 형사적 사건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교회 해산을 강요하기 위한 일본 당국의 음모였음을 이해하게 해준다.

검거된 지도자들의 석방이 점점 요원해 지고, 저들에 대한 고문과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렇게 4개월 여가 지나고 난 6월 2일 아침, 결국 최태현 목사가 감옥에서 취조 도중 인사불성에 빠지게 되었고, 급히 경성요양병원으로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했지만 오후 8시 45분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일제의 핍박 아래서 재림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최태현 목사가 순교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일제의 공작이 있었다. 최초에 저들의 취조 내용은 간첩 혐의와 공금 횡령 등 특별한 혐의가 없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지도부나 가족들은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혐의를 잡지 못하자 저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가르침을 빌미로 보안법 위반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처럼 교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여 취조함으로써 투옥된 지도자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 그런데 이 취조 과정에서 일제의 본질적인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해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취조 형사들은 최태현 목사를 비롯해 투옥된 재림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해산서에 서명하면 모두 석방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가 결의를 굳히자 가혹한 구타와 고문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결국 최태현 목사가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었다.[5]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구속과 고문이 단순히 형사법에 저촉된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

---

[1]교회지남, 1954년 10월호, 21.
[2]이영린, 77.
[3]상게서, 77, 78.
[4]반상순, 아! 순교자(서울: 시조사, 2003), 123, 124.
[5]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71.

라 일제가 교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공작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림교회와 더불어 해산을 당한 성결교회와 침례교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침례교회의 경우 1942년 6월 10일에 일본 헌병대가 동아기독교의 본부인 원산 총부를 수색하고 이종근 감목을 잡아 구속 심문하였는데, 그 죄목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와 관련된 치안 유지법 위반죄였다. 일경들은 다음날 전치규 목사와 김영관 목사를 구속했으며 원산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교회 해산 공작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3개월 동안 총 32명의 침례교 지도자들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침례교 지도자들은 경찰서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였는데, 그 결과로 전치규 목사가 옥중에서 순교함으로 침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침례교회를 핍박하던 일제는 결국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동아기독교의 교단 해체를 판결하여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했다.[1]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1943년 2월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검거한 후 5월 24일에 이르러서는 300여명의 성결교회 교역자, 장로, 집사들을 일제히 검거하여 동일한 고문과 핍박을 가하였다. 그 후 일제는 성결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해산서에 강제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그들은 재림교회가 해산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1943년 12월 29일 결국 강제 서명함으로써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2]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재림교회 지도자 검거 역시 교회 해산을 위한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검거된 지도자들이나 그 가족들, 그리고 한국 재림교회의 교인들은 저들의 검거 사유를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겨났지만 역사적 정황을 세밀하게 살펴볼 때 이 사건은 어떤 혐의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일제의 공작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재림교회 해산(1943. 12. 28)

최태현 목사의 순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경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교회해산서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 일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검거를 통해 교회의 자신 해산을 유도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즉 교회 간부들이 보안법에 저촉되어 형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되면 그 교회는 적성기관으로 간주되어 모든 교회 재산이 압수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해산서에 자진해서 서명함으로써 형을 받지 말라는 게 그 명분이었다. 일경은 이 명분으로 여전히 옥중에 있던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런 명분과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신태악 변호사는 동일한 논리로 교회를 해산하는 길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교회 해산을 종용하였다.

---

[1]이정수, 141-148.
[2]안수훈, 176, 177.

상황이 이쯤 되자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타협하기로 하고 그해 12월 27일 감옥에서 나와 경성요양병원에 모여 있던 합회장 대행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일제의 강요대로 재단의 해산을 선언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이 '안식교 해산 성명서'가 그 다음날인 12월 28일 일자로 발표되어 전국 각 교회에 배포됨으로써 재림교회는 40년 만에 해산되는 비운에 처해지게 되었다.[1] 경기도 경찰부장 오카(岡)의 강압에 의해 재단이사들이 교회해산 성명서에 날인을 하고 각 교회에 발송하게 되자 이 해산서를 받아 든 교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함명학교, 진명학교, 희명학교 등 재림교회의 여러 소학교들에서 교사로 봉사했던 이항식 장로는 그 때 "천지가 캄캄하였다."고 회고하였다.[2] 그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교회가 해산되자 지도자들은 교회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신태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회재산을 정리하였다.[3] 합회 본부와 선교사 사택들은 경성제국대학에 40만 원에 팔았고, 시조사는 매일신보사에 10만 원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매도했다. 한편 경성요양병원은 재단법인 결핵예방협회조선지부가 40만 원에 매입하여 서광장(瑞光莊)이라는 이름 아래 총독부 고관들의 요양원으로 만들었다.[4] 이렇게 재산을 처분해서 만들어진 금액의 일부는 국방헌금으로 징수되었고, 또 일부는 사역자들의 퇴직금으로 지불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재단법인 자동의숙(自東義塾)을 조직하여 면목리 경성삼육원 자리에 자동농사학교를 경영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외 교회들도 모두 처분하라는 것이 일제의 지시였지만 실제로 처분된 교회는 퇴락한 곳 몇 곳에 불과했다.[5]

4. 해산 후 교회활동(1944-1945)

교회가 강제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통치자들의 손에 해산되었다는 사실을 정신으로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해산한 것은 일제의 가장 큰 실책이었고, 그것

---

[1]Ralph S. Watts, "Adventist Triumpt in Korea," *Review and Herald*, August 29, 1946, 14. 재림교회가 해산되자 매일신보는 "해산한 안식교신도 황민으로서 재출발함"이라는 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였으며 경기도 경찰부장 오카(岡)의 담화문도 실었다. 매일신보, 1943년 12월 30일자; 경성일보, 1943년 12월 30일자 참조.

[2]이항식, "이항식 장로의 전기,"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322.

[3]청산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오영섭, 이성의, 임종희, 김명길, 이혁, 박창욱, 곽종수, 차영준, 고두칠.

[4]매일신보, 1942년 5월 27일자; 교회지남, 1948년 7월호, 12; 이영린, 79.

[5]이영린, 79.

때문에 일제는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 편으로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비록 교회의 조직은 없어졌지만 재림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간직한 채 전국 곳곳에서 지하 교회 등을 통하여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 시대에 재림교회는 몇몇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신앙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들 가운데는 김명길과 같은 사역자도 있었고, 조경철, 반내현, 신태식 등과 같은 평신도들도 있었다. 김명길 목사는 "일본 정치가 교회의 명칭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심만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았다.[1] 특별히 그는 같은 운명을 맞이한 성결교회의 오소천 목사와 연합하여 부인용 핸드백 행상인으로 가장한 채 전국을 누비며 교인들을 지도하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원산, 함흥, 해주, 장연, 평양, 부산, 대구, 안동, 목포, 나주 등 전국을 다니면서 153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등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다.[2]

조경철, 반내현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재림교회 최초의 교회인 선돌교회 집사였던 조경철 집사는 강원도 하송관으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재림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다니며 재림교인들의 신앙을 독려하였다. 반내현 목사 역시 신태식 장로와 더불어 가평의 적목리에 신앙공동체를 세운 뒤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비밀리에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일제의 강력한 신앙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신앙정신을 잃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일제의 압제가 결코 영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들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해산 후 교회의 활동이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제는 교인들 중에 교회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교인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교회 해산에 반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3]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림교회 신앙공동체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인섭 장로가 중심이 된 지리산 신앙공동체, 조경철 집사 등이 활동한 강원도 철원의 하송관 신앙공동체, 이성옥 목사가 중심이 된 서울 신앙공동체, 김호규 장로를 중심으로 한 순안 신앙공동체, 김성달 장로 등의 태백산 신앙공동체 등이 지금까지 알려진 신앙공동체들이다.[4]

이 중에서도 가평 적목리 신앙공동체는 재림교회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

1김명길, "나의 회고록," 순교자와 선구자의 발자취, 339, 340.
2 이영린, 82, 83.
3반내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240.
4이종근 편,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409-514 참조.

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신태식과 반내현에 의해서 주도된 가평 적목리 신앙공동체는 교회 해산 후 가장 두드러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내현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적목리 신앙공동체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서북으로 80리가량 떨어진 산간지대로 일제의 감시로부터 피하기 좋은 곳이었다. 신태식은 그곳에서 철도 침목을 만드는 산판일을 책임 맡았기 때문에 재림교회 젊은이들로 하여금 징용을 피해 벌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이로 인해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찾아와 적목리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재림교회사가인 이영린 교수는 이곳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곳이었으므로, 육신적으로는 전에 노동을 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적은 배급식량으로 뱃가죽을 움켜쥐고 중노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마음만은 편하여서 피차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이겼다.[1]

적목리 신앙공동체는 일제의 교회 해산 이후에도 재림교인들이 함께 모여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준 신앙공동체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재림교회는 이 지역을 역사 유적지로 복원함으로써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는 종교적 수양의 장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는데, 이 일에 삼육대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평 적목리 신앙 유적지 복원을 위한 최초의 행보는 1962년 10월 9일과 10일에 시작되었다. 이 날 이영린 교수는 삼육신학대학 3학년생인 김영환, 임종서 두 학생과 함께 적목리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홍성실 집사를 모시고 적목리 일대를 답사하였다.[2] 이후 이곳은 재림교회의 역사책에만 남고 교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잊혀졌다. 그러나 적목리 공동체의 증인들이 살아 있을 때 유적지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재림교회 역사가들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이영린 교수에 이어 오만규 교수는 1986년 가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3,4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산 증인인 신태복 장로(신태식의 동생)를 모시고 적목리 유적지를 찾았다. 이후 적목리 신앙유적지 건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1991년에 "신앙유적지 건립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과정과 더불어 1994년에 이르자 일명 "유적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해에 삼육대학교 신학과가 적목리에서 "영성수련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학생들의 노력으로 "신앙유적비"를 세웠다. 일주일 후에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그 지역의 입구에 "안내비"를 세웠다. 2년 후에 성남중앙교회 AY청년들과 금

---

[1]이영린, 82.
[2]상게서.

곡교회 AY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삼육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세운 유적비를 중심으로 200여 평의 공간에 풀을 베어내고 그곳에 세부적인 위치를 밝히는 표지판을 세웠으며 진입로 입구에는 스테인레스 안내판을 크게 세우는 등 "유적지 조성작업"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가평 적목리 신앙유적지 조성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유적지 조성작업은 안금영 교수(신학대학원장)와 이종근 교수(교학과장)의 지도 아래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더불어 1996년 10월에 적목리 신앙유적지 기념비 및 안내비를 건립한 후 이곳의 역사유적지 성역화 작업에 대한 허가요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였다. 그 후 1998년 10월 삼육대학교 제92주년 개교기념 신학포럼에서 "적목리 신앙공동체 증인들의 역사적 증언"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적목리의 증인들과 후손들을 초청하여 여러 기념행사들을 가졌다. 그 행사 중 하나로 적목리 신앙유적지를 방문에 기념식도 개최하였다. 10월 11일에 개최된 이 방문 기념식에는 당시 증인들인 반내현, 신태복, 강태봉, 신선희, 노사라, 오춘수, 이대련 등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유적지가 조성된 장소로부터 1.2km 떨어진 북쪽 능선에서 당시 움막터, 집터, 교회터, 침례장소 등을 새롭게 발견하였다.[1] 이로써 가평 적목리 신앙공동체 유적지 본처가 완전하게 발굴되기에 이르렀다.

가평 적목리 신앙공동체 유적지 발굴 및 조성엔 신계훈 총장을 중심으로 한 삼육대학교의 교수들과 신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노력이 컸다. 특별히 이종근 교수는 적목리 유적지 조성을 위해 수십 차례 유적지를 방문하고 유적지 복원기 등을 포럼에서 발표하여 신앙유적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 삼육대학교는 재림교회 역사에서 위기에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낸 숭고한 신앙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적목리 신앙공동체 복원의 주체가 되었다. 특별히 이곳을 유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1999년 12월 31일에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이 일대(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28번지)를 향토유적지로 확정받기에 이르렀다.[3] 이로 인해 가평 적목리는 재림교회의 살아 있는 신앙적 역사 공간이 되었고, 삼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정신의 교훈장이 되었다.

가평의 적목리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알려진 신앙공동체 이외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을 유지한 재림교인들이나 가족, 나아가 마을 단위의 공동체는 많았다.

1이종근, "유적지 복원기,"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204.

2이종근, "가평 적목리 신앙공동체 복원연대," 삼육신학포럼, 2002년 제9호, 105-122.

3적목리를 향토유적지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신계훈 총장과 이종근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특별히 이종근 교수는 이 일을 위해 적목리를 수없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종근, "유적지 복원기," 203-205. 한편 신앙유적지 위치와 관련된 '제1유적지'와 '제2유적지' 논쟁도 있었다. 오만규, "가평 적목리 재림교회 신앙유적지의 위치 문제," 미간행원고, 1-12; 재림신문, 2000년 3월 15일자, 9; 재림신문, 2000년 12월 8일자, 8-9.

비록 교회가 해산되었지만 개인들의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많은 재림교인들은 중세의 참혹한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왈덴스인들의 모본에 따라 암울한 시기를 극복해 내었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 해산 이후 해방의 시기까지 신앙 정신을 지켜나간 재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김재신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각 지역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가정에서, 혹은 산과 들이나, 또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찬미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성경공부와 기도로써 하나님의 가호하심을 빌며, 해방의 그 날까지 왈덴스인들(Waldenses)의 신앙체험을 체현하고 있던 적은 무리를 광야교회(曠野敎會)라 하였다.[1]

한 편 교회 없이 공동체 신앙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신앙의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재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최태현 목사의 순교 후 추가로 구속되었던 김례준 목사는 출옥 후 옥중에서 얻은 지병으로 1945년 6월에 진남포에서 주안에 잠드셨고, 금화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이명준 전도사는 교회 해산 후에 검거되어 감옥에 계시다가 사리원 도립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1944년 9월에 숨을 거두셨다. 아울러 일본에서 사역하시던 배경수 전도사 역시 일제의 일본교회 박해 시 고문을 받고 그 여파로 1945년 5월 부산 동래에서 주 안에 잠드셨다.[2] 이 외에도 이성의 목사와 박창욱 등이 출옥 후 옥고의 영향으로 돌아가셨다.

교회 해산 후 재림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광야교회에서의 삶과 순교자로서의 삶과 고난과 핍박과 억압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삶이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도 그와 같았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일까? 일본의 제국주의적 책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재림교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견딜 만큼의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난 후 드디어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고 이 땅에는 다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75.
[2]이영린, 84.

제5장 교회와 교육사업의 재건
(1945~1947)

중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제패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이 제해권(制海權)을 둘러싸고 결국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치르게 된 것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희망의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전쟁을 전후해 일제의 압제가 극심해져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전후 6개월간 일본은 어느 정도 전세를 주도하며 제국주의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 해전[1]을 계기로 전세는 미국 쪽으로 급선회하였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패배는 곧 일제의 식민지들의 해방을 의미했다. 전세가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자 일제는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수탈이 심해질수록 일제의 패망은 가까이 왔다. 실제로 재림교회와 기타 교단들이 해산된 지 2년도 안 되어 해방이 되었고, 교회는 다시 재건되었다. 이 장에서는 일제의 패망과 해방, 그 해방 공간에서의 교회와 교육사업의 재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1. 8.15 해방(1945)

일제가 조선에서 기독교를 어용화시키고, 군소 기독교 단체를 해산시키던 때인 1943년은 확실히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특별히 일본과 미국 간의 태평양 전쟁은 확실한 미국의 우위 아래 일본의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이런 전황에 힘입어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將介石)는 1943년 11월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여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 이 카이로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만주와 타이완 등 일본이 강제 점령한 모든 지역은 반환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 독립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였다.[2]

미국에 제해권을 빼앗긴 일본은 계속 밀렸고, 드디어 1945년 4월 미국이 오키나와(冲繩)에 상륙함으로써 본토마저 내주었다. 전황이 이렇게 일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

---

[1]일본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전략적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 했으나 일본의 항모전단이 미국의 공격에 의해 궤멸되어 태평양의 제해권은 확실하게 미국에게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미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어 결국 일본의 패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권주혁, 헨더슨비행장: 태평양 전쟁의 갈림길(서울: 지식산업사, 2001), 158-164.

[2]카이로선언은 한국의 경우 독립 전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오늘날 한반도가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복룡, 한국분단사 연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65.

고 일본의 저항은 매우 강력했으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미국, 영국, 중국 등은 그해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 다시 모여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제의 무조건 항복을 최후 통첩했다. 여기에 일본이 응하지 않자 미국은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岐)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전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 얄타협정에 따라 소련이 전쟁에 가세하여 일본 관동군을 격파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1]

드디어 8월 15일에 이르러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었다. 그 결과 타이완(臺灣)은 중국으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는 소련으로 되돌려졌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은 물러갔지만 조국이 우리 민족에게 완전히 돌려지지는 않았다.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각각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의 분단이 고착되었고, 남한은 3년간에 걸친 미군정하에 놓였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반쪽의 독립을 성취하였다. 이처럼 해방 이후 국내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산의 비운을 씻어내고 각종 사업들을 재건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웠다.

2. 교회의 재건

8.15 해방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사건이었다. 자유를 다시 찾은 기쁨과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위한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 겪었던 수많은 질고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모든 국민들은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면서 거리로 뛰어나와 자유와 해방의 찬가를 소리 높이 불렀다. 당분간은 이 축제의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라의 건국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해왔다. 더욱이 진정한 독립을 바라던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소련으로부터 남은 미국으로부터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하는 비독립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기에 일제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정리해야만 하는 과제까지 남겨져 있어 해방 공간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의 장이 되어 버렸다.[2]

어떤 면에서 재림교회 역시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다. 해방이 되자마자 많은 재림교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당을 청소하며 교회를 찾아온 신

---

[1]상게서, 69, 70.
[2]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 한국 근현대사(서울: 서해문집, 2005, 252, 253.

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해방의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청진동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해산 이후 서울 신앙공동체를 이끌었던 이성옥 목사는 해방 후 첫 금요일인 8월 17일에 "김석영 목사와 함께 청진동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사택에 주재 사역자로 있던 최철순 전도사에게 교회 청소하러 왔노라 하고 굳게 닫혀 있던 예배당 문을 열고 청소를" 하였으며, 이튿날 안식일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찬미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1] 이처럼 재림교인들은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기쁨을 뒤로 한 채 곧바로 2년 전에 강제로 폐쇄되었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해방 후 첫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인 8월 19일 일요일에 재림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서울 시내 청진동교회에 모여서 교회 재건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성의, 곽종수, 김천수, 최철순, 이준민, 박창욱, 오영섭, 이여식, 오석영, 배채선, 손형국, 정동심, 김명길 이상 13명이었다. 이들은 "조선교회를 재건할 것"과 "조선합회 유지재단에 속한 동산, 부동산을 1943년 12월 28일 이전 현재로 회수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 일을 추진할 실행위원을 구성하였다. 그 위원들로는 정동심, 박창욱, 곽종수, 오영섭, 이여식, 오석영이 선출되었다.[2]

1) 교회 재산의 회수

교회재건을 위해 선임된 실행위원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과업은 유지재단에 속했던 교회 재산들을 회수하는 일이었다. 재건위원들은 우선 재산을 처분하여 남은 돈으로 만든 재단법인 자동의숙에서 경영하던 자동농사학교를 원래의 경성삼육원으로 돌려, 삼육중학교 간판을 붙였다.[3] 그 후 경성요양병원을 회수하였다. 경성요양병원은 일본인 고급 간부들의 요양소인 서광장으로 운영되었는데 해방 직전 책임자가 일본으로 가버려, 재건위원들은 미주둔군사령부와의 교섭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돌려받고 경성요양병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에는 정사영 박사의 노력과 재림교인이었던 미군 돔브로스키(S. L. Dombrosky) 상사의 도움이 컸다.[4]

재림교회 출판사인 시조사의 경우는 임대계약금 10만 원을 매일신보사가 신태악 변호사로부터 찾아감으로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자연스럽게 원래의 주인인 재림교회에게로 돌아왔다.[5]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에 넘겨주었던 합회 본부와 선교사 사택, 회기동교회 등은 해방 후 서울대학교로 이름이 바뀐 이 대학의 총장인 윤일선 박사의

---

[1]김재신, "이성옥 목사 집의 모임,"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479.
[2]교회지남, 1948년 7월호, 11, 12.
[3]상게서, 12.
[4]S. L. Dombrosky, "What I saw in Korea," *Review and Herald*, March 21, 1946, 21.
[5]교회지남, 1948년 7월호, 12.

승낙으로 환원되었다.[1]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재산들이 회수되었다.

당시 교육부장이었던 이여식 목사는 교회 재산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경성요양병원의 경우 총독부에서는 고급간부 환자 요양소를 세우기 위해 경성요양병원을 서광장으로 바꾸고 대규모의 시설을 건축하고 부지도 원래의 두 배로 확장을 해 놓았는데 해방과 더불어 열쇠를 재림교회의 재건위원에게 남기고 떠나가 버림으로 교회는 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아울러 경성제국대학교로 넘겨졌던 본부와 사택 건물들도 서울대학교로부터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건물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받은 40만 원에 대한 귀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태악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40만 원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명의로 미군정청에 공탁했는데 서울대학교는 그 돈을 일제의 잔재로 여기고 받지 않기로 해 고스란히 재림교회 유지재단의 기본금으로 입금되었다.[2] 교회 해산과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것을 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고, 또 이런 축복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이 교회 재건을 위해 헌신하던 재림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2) 신도대회 개최

원래 교회에 소속되었던 재산들을 회수한 후 본격적으로 재림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건위원들은 각 지방에 있는 신자들과 재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기 위해서 신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재건위원들은 서선대회에서 활동하던 임성원 목사를 중심으로 신문광고와 공문서신 등을 통해 신도대회를 광고하고, 194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본부교회 예배당에서 전국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는 4개 대회(서선 55명, 북선 8명, 중선 72명, 남선 11명)에서 총 146명이 참석하였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성원 목사의 사회로 총회가 시작되었고, 재건준비위원회의 경과보고 후에 총회 임시임원들을 선출하였는데 의장에 김병목, 서기에 최성훈이 각각 선출되었다. 선출된 의장단은 사무절차에 따라 전형위원들을 뽑고, 전형위원들은 다시 선거위원들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이 선거위원들에 의해서 합회 임원들이 최종적으로 선출되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 재건 초기 재림교회의 지도자들로 선출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3]

---

[1]상게서, 12, 13; 이여식, "선구자들의 전기,"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5.
[2]이여식, "선구자들의 전기,"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 24-26.
[3]교회지남, 1948년 7월호, 13, 14.

전형위원: 이성옥, 김동규, 이용준, 유성렬, 반내현, 김병섭, 김호규, 박마리아

선거위원: 김호규, 김성달, 민영선, 정예환, 김봉덕, 정영선, 이규환, 유성렬

합회임원: 합회장-임성원, 서기겸 회계-오석영, 각부 주임-이여식, 시조사 총무-송용환, 순회목사-김명길, 정동심

합회평의원 명단: 합회장, 서기겸 회계 각부주임, 시조사 총무, 의료부 주임, 김상칠, 김진택, 정동심, 조경철, 임병의, 김병목, 반내현, 김동규, 정예환, 유성렬.

이 신도대회에서는 단지 임원들의 선출에만 국한하지 않고 향후 재건된 한국 재림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하는 경영위원회도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경영안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교육사업의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1]

첫째, 청소년들을 수양시켜 자급전도에 참가시키도록 함.

둘째, 지방 소학교를 우리 교육 이상대로 회수하여 교육시키기로 함.

셋째, 신학교를 속히 열도록 함.

넷째, 대총회의 지도를 받아 의과대학을 세우도록 할 것.

이 교육 관련 경영안들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재건에 있어서 교육 사업을 재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특별히 신학교를 속히 재개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교회 재건에 있어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경영안 가운데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이후로 의과대학 설립안이 재림교회 대학의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전국신도대회가 마친 후 1945년 10월 25일부터 합회 본부에서는 평의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전국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목양활동을 할 사역자들을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합회장 임성원 목사를 비롯해, 이여식 목사, 오석영 목사, 송용환 목사 등에게 목사 신임서를 수여하고, 그 외 자급사역자들에게 지역교회를 배치하여 교회 사역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사영 박사의 제의에 따라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전재동포(戰災同胞)들의 구제사업에 착수할 것도 결의하였다. 이 밖에 시조사 운영 등에 관한 결의와 분단 이후 북한 지방을 위한 행정체계 이원화 등도 결의되었다.[2]

---

[1]교회지남, 1946년 1월호, 6, 7; 김재신, 한국기독교문화의 일 연구(서울: 공익문화사, 1969), 71, 72.

[2]북한지역을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서선지방에 임시평의원회를 두기로 하고 김병목, 정예환, 임병의, 최성훈, 김호규, 김봉덕 외 1명을 그 평의원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조선합회 평의원회의사록, 1945년 11월 4일자.

3) 지방교회들의 재건

지방교회들의 재건을 위해 자급사역자들을 배치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남포, 용강군 석성리, 광염만 – 김봉덕, 대동군 일대 – 최성훈, 강서군 함종 일대, 정량리, 대마리, 용강군 갈현리 – 정예환, 황해도 일대 – 전기혁, 평원군 일대 – 김덕순, 안주이북 – 김동규, 용강군 입성리, 주흥리, 오 리 – 이혁, 강서읍, 강서군 거장리, 용강군 국안리, 강서군 운북리 – 임성해, 제주지방 – 양총일, 진도지방 – 김윤성, 호남지방 – 유성렬, 남부지방목사 – 김명길, 영남지방 – 오성룡, 광천, 온양 일대 – 이덕호, 영동지방 – 반내현, 영서지방 – 조경철, 원신이북 – 박원실, 함경남도 안변군 고산, 사리 – 김진택, 서선지방 회계 – 김병목.[1]

이렇게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된 자급사역자들은 지방교회들의 재건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 압제 후 교회 해산의 비운까지 경험했던 터라 상처 입은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문을 닫았던 교회들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사역자들의 노고와 열성으로 지방교회들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교회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재건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이었다. 특별히 소련 주도 아래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북한지역에서 교회의 재건은 상당히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지방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래 평의원회에서는 북쪽 지역의 선교를 위해 임시평의원회를 두기로 했었는데, 이것 외에 더 세부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듬해인 1946년에 교회 조직을 남북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도록 결의하게 되었다.[2]

해방 후인 1945년 11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원동지회에서는 한국사업의 재개를 위해 와츠 목사를 조선합회장으로 다시 내정하였다. 이에 와츠 목사는 1946년 3월 13일에 조선으로 돌아와 한 달 후인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평의원회의에서 추인을 받고 교회재건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과 남한지역을 이원화해서 조직을 구성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지역은 임성원 목사, 남한지역은 정동심 목사가 각각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합회를 두 지역으로 분할해서 운영하도록 조처한 후에 와츠 목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귀국하는 1947년에 다시 내한해 정식으로 합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

[1]이영린, 86, 87.
[2]상게서.

교회재건 사업이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남한 지역의 교회재건 사업은 합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특별히 북한지역에는 소련 치하에서 남한과의 연락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면서 교회재건 사업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지역 책임을 맡게 된 임성원 목사는 북한지역의 교회재건을 위해 북조선 신도대회를 별도로 열 필요성을 느끼고 1946년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입성리에서 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 북조선에 있던 교인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북선대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대회의 책임자로는 대회장에 임성원 목사, 서기 겸 회계에는 송용환 씨가 각각 피선되었다. 북선대회는 본부를 평양에 두고 4명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재건에 혼신을 기울였다.[1] 이들의 헌신어린 봉사는 다음의 보고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 이 넓은 지방에 이 적은 사역자로 유지할 재정이 없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지만 사역자들은 헌신하여 나가고 신자들은 격의 없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중에 성신의 역사는 실지로 나타났습니다. 즉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때이라도 우리 신자들은 아무런 위험과 난관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할 아무런 것이 없음을 믿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2]

이 부흥의 여세를 몰아서 북한지역의 교인들은 1946년 11월 15일부터 1947년 1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순안교회에서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선 재림교회에서 "처음보는 성스럽게 은혜받은 부흥수양회였다"고 말하고 있을 만큼 당시 교회 재건과 더불어 개최된 수양회는 많은 교인들의 마음에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었다. 이런 수양회는 평양교회(1947년 5월)와 갈현리교회(1947년 8월)에서 계속되었다. 한편 청소년들과 교인들을 위한 수양회는 남한지역에서도 계속되었다. 이 모두가 교회재건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들이었다. 이런 일련의 신앙적 모임 덕분에 지방교회들이 견실(堅實)하게 재건되었다.

4) 선교사들의 재입국

교회재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면서 한국 상황이 안정되자 대총회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다시 한국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해방공간에서 한국 기독교는 본방인 중심의 교회 운영과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

[3]교회지남, 1946년 2, 3월 합병호, 16.
[1]교회지남, 1948년 7월호, 7.
[2]상게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논의와 모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사들이 교회운영에 많은 관여와 기여를 했지만 이후로 한국 기독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닦아 나갔다.

이에 비해 재림교회는 여전히 선교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해방과 더불어 지도자들은 신도대회를 통해서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임원들을 선임했지만 대총회의 합회장 파송과 선교사들의 재배치로 본방인 중심의 교회운영은 사실상 무의미해져 버렸다. 본방인 중심의 교회운영이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림교회는 신학적, 재정적, 행정적 자립에 이를 만큼 안정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총회의 지원과 더불어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교회재건사업을 추진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1] 이런 필요의 측면에서 볼 때 해방 후 선교사들의 귀환은 요긴한 결정이었다.

선교사들 중에 와츠 목사가 조선합회 선교사로 임명받은 후 가장 먼저 내한했으나 곧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와츠 목사는 남한지역 책임자로 임명된 정동심 목사을 합회장 대리로 임명한 후 한국 상황을 파악한 뒤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다. 그리고 1946년 6월 5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총회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루 의사, 왕거린 여사, 제임스 리 목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인 대표로는 교육부장이었던 이여식 목사가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한국 대표들은 태평양 전쟁 중에 조선교회가 겪은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2]

대총회가 마쳐진 후 6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하던 와츠 목사는 1947년 1월 12일에 다시 내한하여 그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합회장실에서 평의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와츠 목사는 대총회와 원동지회의 결의에 따라 정동심 목사를 조선합회 부회장과 원동지회 평의원으로 임명 보고하고, 박창욱 목사를 시조사 총무로 채용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조선합회신학교를 다시 개교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교육사업의 재개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별히 신학교 개교를 기정사실화하고 교장에 와츠 목사, 교감에 이여식 목사, 교원으로는 제임스 리 목사와 박창욱 목사를 선출함으로써 신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3] 이로써 교회재건과 더불어 교육사업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와츠 목사의 내한에 이어 그해 4월 15일에 루 의사와 제임스 리 목사, 미첼(Leland Mitchell, 민제일) 등이 제2진으로 귀환하였다.[4] 이들은 전후 한국 사회에서

---

[1]오만규, 재림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82), 339.

[2]이 대총회 참석 보고문은 교회지남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여식, "대총회에 다녀와서," 교회지남, 1947년 5월호-10월호를 참고하라.

[3]교회지남, 1947년 3, 4월호, 16.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주도할 중심인물들이 되었다. 두달 후인 6월 26일에는 왕거린이 귀환하여 시조사의 편집국장을 책임 맡아 출판부 사업을 주도하였다. 이 때 그녀와 함께 또 한 명의 여자 선교사가 내한하였는데 롭슨(Irene Robson, 羅寶順)이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였다. 롭슨은 닥터 루를 도와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장으로 초청된 의료선교사였다.[1] 2주 후인 7월 8일에는 합회 회계로 밀스(R. C. Mills, 馬一瑞)와 시조사 총무로 먼슨(George Munson, 文善一) 선교사가 내한하였다. 이들의 내한으로 한국 재림교회의 재건사업은 다시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의료, 교육, 출판 등 각 분야의 사업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과 더불어 1948년 5월 20일에도 교회 해산 전에 문서전도부장을 역임한 바르 목사가 조선합회 부회장으로 다시 내한했으며, 문서전도부 책임자로 일했던 피어슨(R. W. Pearson, 피일선) 목사는 의사가 되어 29일에 귀환하였다.[2] 이렇게 해서 선교사 철수 시에 필리핀으로 전근되어 출국했던 클린턴 리 목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3. 교육사업의 재건(1947)

지금까지 교회의 핍박과 해산, 그리고 해방과 교회의 재건 과정을 다루어왔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난 속에서 어떤 과정을 지내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재림교회는 이 땅에 삼육교육이념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기 위해 무수한 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과 교육의 길을 유지해 왔다. 교회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자료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해방과 더불어 교회재건을 추진하면서 교육사업의 재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특별히 신학교의 재개를 위해서 처음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

교육사업의 재건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국 신도대회에서 제안된 경영위원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었으나, 교회 지도자들이 평의원회를 통해서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1947년 1월에 이르러서였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조선합회 합회장으로 임명되어 공식적인 합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내한한 와츠 목사는 신학교 개교를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운영진과 교사진을 미리 선정한 후 본격적인 교육사업 재건을 추진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사

---

[4]교회지남, 1947년 5, 6월호, 16.
[1]교회지남, 1947년 7월호, 16.
[2]교회지남, 1948년 6월호, 16.

업 재건에 특별한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은 해방 직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 때문이었다. 와츠 목사가 전하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 2년 전(해방 직후)에는 조선합회에 소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도 적었지만은 기관 사역자는 더욱 적었습니다. 대회도 없었고 병원 시약소만 일하고 인쇄소도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고, 지방교회와의 통신거래도 여의하게 되지 못하였고 38선은 서북대회를 본부에서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학교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관들은 수리의 필요를 느꼈습니다.[1]

합회장이었던 와츠 목사가 전하는 해방 직후의 재림교회 상황은 해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참담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역에 임할 준비된 사역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와츠 목사는 학교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사역자 양성의 길이 요원해졌던 상황을 설명한다. 이는 신속하게 신학교를 개교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서둘러 교육사업의 재건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이 공식적으로 재개된 것은 그해 9월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초등학교 사업의 경우 각 지역의 교인들에 의하여 이보다 먼저 문을 열기 시작했다.

1)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재건과 관련해서 각급학교의 개교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방 후 국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 특별히 교회해산 이전의 한국 교육은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3, 4차 조선교육령의 체제 아래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해방 공간에서 새롭게 수립된 교육정책에 따라서 교육사업이 재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교육정책은 우선 미군정청의 지도 아래 수립되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그 다음 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정식으로 항복을 받은 후, 9월 10일에 미군사령관 하지(John Rheed Hodge)가 임명한 군정장관 아놀드(A. B. Arnold)를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직하고, 9월 11일부터 군정을 열었다. 미군정은 미육군 직제에 따라 조직되었기 때문에 교육은 공보부문의 일부로 편제되어 당시 육군 대위였던 로카드(Earl N. Lockard)에 의해서 사무가 시작되었다. 시카고의 한 초급대학에서 강의한 경험이 전부였던 로카드는 교육, 특별히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인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7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을 조직하여 교육관련 문제들을 자문을 받았는데, 이 위원회는 심의와 결

---

[1]R. S. 와츠, "조선합회장의 보고(1945년 11월-1948년 5월)," 교회지남, 1948년 7월호, 2, 3.

정까지도 담당하였다.[1]

해방 후 조선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확립하기 전에 미군정청 학무국은 먼저 오천석을 책임자로 하여 학무국에 남아 있던 한국인 직원들에 의해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9월 17일 일반명령 제 6호로 발표하였다. 이 일반명령 제6호는 다시 수정된 후 9월 29일자 법령 제4호로 공포되었다.[2] 이 법령은 해방 후 각급학교의 개교를 위해 응급조치로 공포된 것이었다. 이 법령과 더불어 9월 22일에 교육방침이 결정되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제잔재의 불식, 평화와 질서의 유지,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기능의 연마 등을 골자로 하였다. 특별히 이 방침에서는 초등학교의 교과 편제를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의 개교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9월 28일에 각도에 지시한 교육지침에서는 10월 1일을 기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도 개교할 것을 지시하였다.[3]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서 해방된 조선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미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11월 23일에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심의회는 10개의 분과로 나눠져 3개월이 넘는 분야별 심의회의들을 통하여 해방 공간에서의 첫 교육제도를 결정하게 되었다.[4] 이 중 제2분과인 교육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① 학교체제를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특수교육의 5단계로 하고, ②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원까지 전체 교육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③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④ 재래의 3학기제를 2학기제로 하여 1학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하였으며, 이 신제도는 1946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것 등이었다.[5] 이렇게 제정된 교육제도에 의해 원래 2원제로 운영하던 학제가 1원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식민시대의 간이학교, 보습학교, 강습과, 연습과 등은 폐지되었으며, 각급학교의 교육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고등중학교의 전기

---

[1]한국교육위원회는 1945년 9월 16일 발족하여 1946년 5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였던 미군정청 교육행정의 자문기구였다. 분야별 대표위원은 초등교육에 김성달, 중등교육에 현상윤, 전문교육에 유억겸, 교육전반에 백낙준, 여성교육에 김활란, 고등교육에 김성수, 일반교육에 최규동 등 7인이었으며, 9월 22일에는 김성수가 교육담당관 고문이 되자 그 대신으로 백남훈이 고등교육 담당위원으로 취임하였다. 11월에는 의학교육에 윤일선, 농업교육에 조백현, 학계대표에 정인보 등 3명이 추가되어 10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부, 1964), 383.

[2]유봉호, 279.

[3]경기도교육위원회편, 경기교육사(수원: 경기도교육위원회, 1975), 369, 370.

[4]조선교육심의회는 총 10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의학교등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심의하여 1946년 3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최종 결정하였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한국교육십년사(서울: 풍문사, 1960), 85.

[5]유봉호, 292.

3년을 중등과, 후기 3년을 고등과라 함), 실업고등중학교 6년, 사범학교 3년, 대학 4년, 의과대학 6년(전기 2년은 예과)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두게 되었다.[1] 이로써 미국식의 6·3·3·4제의 교육연한 제도가 채택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체계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과 한국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노력으로 제정된 초기의 교육제도는 해방 후 신조선사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재건 및 신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9월 말에 발표된 법령 제4호의 영향으로 전 조선에서 초등학교의 개교가 일제히 이루어졌다. 당시 매일신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사화하였다.

> 전 조선의 국민학교에서는 일제히 개교를 하게 되는데 당분간 학과 과목과 시간수효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나가기로 되었다. 아직 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는 2부 교수로 될 터인데 교수시간은 전부 하루에 3시간씩 1주일에 18시간이다. 그런데 서울의 각 국민학교에서는 특히 미국인들이 학교에 가서 아동들에게 유희도 가르친다. 공휴일을 제외한 1주 6시간에 학년별 수업시간은 … 와 같다.[2]

초등교육에 이어 중등교육도 1946년 3월 새 학제 발표 이후 발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학제 변경을 통해 중등교육이 초급 3년, 고급 3년 등 6년제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등교육을 확충하기 위해 문교당국에서는 "1군 1학교 설치안"을 확정해서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해방 당시 97개교에 지나지 않았던 중등학교 수가 1947년 9월말 현재 406개교에 달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3] 1947년을 기점으로 한 재림교회의 교육사업 재건도 이러한 한국사회의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던 것처럼 재림교회 역시 교육사업의 재건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교육제도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교육사업의 재건에 착수하였다.

2) 초등학교의 재건

교회 해산 전인 1941년 말에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모두 12개교였다. 재림교회는 교회적으로 초등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교육정책으로 1935년에는 23개의 초등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의해 1938년과 1941년에 시행된 제3, 4차 조선교육령과 그에 따른 황민화 정책의 강화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1919년도 수준인 12개교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회 해산과 더불어 지속하지 못하고 대

---

[1]손인수, 688.
[2]매일신보, 1945년 9월 22일자. 유봉호, 282에서 재인용.
[3]손인수, 689.

부분 문을 닫고 말았다.[1] 이 12개의 초등학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 해산때까지 남아 있던 학교는 서울의 동명학교 하나였다. 그러나 동명학교는 1943년에 본교회의 교육이념과 원칙을 떠나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수업을 했다. 강진하 교장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 학교는 해방 이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울청량국민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본 교단에 귀속시키고 학교 운영을 중단했다.

동명학교가 위치했던 곳은 현 회기동 본부교회 뒤편 기찻길 넘어 언덕 위인 휘경동에 위치해 있었다. 학교가 본 교단에 귀속됨으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교육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후 1947년 9월 1일에 본부교회 예배당에서 초중등학교 및 신학교를 동시에 개교하게 되었는데, 이 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51명(남 80, 여 71)의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본부교회 초등학교는 동명학교에서 삼육국민학교로 개명하고 6학급 360명 정원의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교사진으로는 교장에 오석영 목사를 포함해 노원호, 이경일, 김란경 선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해방 후 재림교회 안에서 개교된 첫 번째 초등학교가 아니었다. 이보다 먼저 강원도 동해안에서 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묵호성명학교(墨湖聖明學校)였다.

해방 이후 교회 내 첫 초등학교로 설립된 묵호성명학교는 묵호지역을 담당하였던 자급사역자 반내현 목사가 묵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묵호교회 안에서 시작한 학교였다. 적목리 신앙공동체의 핵심 지도자 중의 하나였고 해방 후 교회 재건에 앞장섰던 반내현 목사는 1945년 10월 신도대회 직후에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영동지방 자급전도자로 명령을 받고 동해안 지역의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는 묵호교회를 재건한 뒤 그 예배당에서 교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소학교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아 1946년 9월에 묵호성민공민학교를 세우고 30여 명의 지원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였다. 묵호성민공민학교는 곧 묵호성명학교로 개명되었으며, 교사로는 한기종 선생이 별 보수도 없이 수고해주었다. 1년 후인 1947년 10월 1일에는 묵회삼육국민학교로 강원도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서울에 있는 삼육국민학교와 같은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2]

초등학교 교육사업을 재건한 이후 1948년 6월에 열린 제15회 합회 총회에서 지도자들은 “신자의 자녀 10명 이상 있는 곳에는 그 지방교회의 경영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기로” 하고 “각 신자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학교에서 교육 받도록 하

---

[1]이영린, 141.
[2]교회지남, 1947년 10월호, 13.

기로" 제의하였다.[1] 이 제의는 각 지역교회의 교인들에게 초등학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주었고 그로 인해 대전, 부산, 청주, 통영 등지에 지방교회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들이 세워짐으로써 재림교회 내에서 초등학교 사업은 교회가 해산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었다.

3) 중등학교의 재건

서울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동명학교를 대신해 삼육국민학교가 세워지던 때는 재림교회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와 신학교를 일제히 개교하던 때였다. 1947년 9월 1일에 거행된 합동 개교식은 삼육국민학교와 삼육중학교, 조선합회신학교를 일괄 개교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이 개교식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사업은 다시 교회해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초등학교와 신학교는 회기동 본부예배당에서 수업을 시작하였지만 중학교는 면목리 경성삼육원 자리에서 다시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경성삼육원은 교회 해산과 함께 청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 40만 원을 신태악 변호사에게 기부하여 만들어진 '재단법인 자동의숙'의 명의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겼다. 이후 경성삼육원은 '자동농사학교'로 명명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비록 교육사업은 중단되었어도 재산 자체의 처분은 막을 수 있었다. 이후 해방과 더불어 이 시설은 별 문제 없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본부교회에서 합동 개교식을 거행한 후, 중학교는 1·2학년에 3학급의 학생들 113명(남 80, 여 33)을 모아 면목리에서 삼육중학교란 이름으로 정식 수업을 시작하였다. 개교 당시 삼육중학교의 교장은 제임스 리 목사였고, 교사들은 김기방, 김창수, 임정혁, 한기조 선생 등이었다.[2] 시설은 우선 과거 경성삼육원 기숙사로 쓰던 건물을 수리해서 교사(校舍)로 사용하였다. 당시 삼육중학교는 면목리 시골에 위치해 있었고 시설도 미비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불평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교육에 임했다.[3] 이는 삼육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들어서 오영섭 목사가 부교장으로 부임했고, 이창규, 김영도 선생 등이 교사로 추가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함석으로 임시교사를 짓고 낙성식(11월 21일)을 거행하는 등 안정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

[1]교회지남, 1948년 7월호, 24.
[2]교회지남, 1947년 10월호, 13.
[3]이영린, 149.

면목리 삼육중학교는 1949년 1월 14일에 문교부로부터 3년제 초급중학교의 인가를 받았다. 이는 1946년 9월부터 공표된 새 학제 개편에 따라 실업보습학교가 3년제의 초급중학교로 승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1] 교회 해산 후 경성삼육원은 자동의숙이 운영하는 "자동농사학교", 즉 실업보습학교 형태로 운영되었었기 때문에 해방 후 학제의 개편에 따라서 3년제 초급중학교로 정식 승격하게 된 것이다. 1949년 7월 21일에는 삼육중학교 제1회 초급과(3학년) 50명과 전수과(4학년 1개년) 35명의 수료식이 있었으며, 3개월 후에는 학교부지로 마련된 태릉의 새 대학 부지로 신학교와 함께 이전하여 삼육동 시대를 열었다.

교육사업이 재건된 이듬해인 1948년은 한국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미래 발전을 예기하게 해주는 몇 가지 일들이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는 자동의숙에 기부되었던 재단이 1948년 6월 7일에 이사의 명의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본 교단의 재단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삼육중학교는 법적으로 재림교회 유지재단에 귀속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해 6월 22일에 경성요양병원 부속 간호사양성소가 고등간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이다. 재림교회 내에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세운 것은 1936년 4월이었다. 1929년에 내한한 루 의사는 순안병원 원장을 역임하다가 1931년 6월에 병원의 서울이전과 더불어 경성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수고하던 중 1936년 4월에 부속 간호사양성소를 개원하여 간호사 양성학교를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삼육보건대학의 효시였다. 이 양성소는 초대 소장 어네스틴 길(Ernestine Gill)에 이어 와츠 부인(1940. 8), 정사영(1941. 2) 박사가 2, 3대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1943년 5월 일제탄압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서울위생병원이 재건되자 1947년 11월에 병원부속 간호고등학교로 개칭하여 다시 문을 연 뒤 간호원장인 롭슨이 4대교장에 임명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48년 6월 22일에 서울위생병원부속 간호고등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다.[2] 이로써 재림교회의 또 하나의 전문고등교육기관인 삼육보건대학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진행된 중요한 세 번째 일은 앞으로 삼육대학교를 포함해 한국 교육사업의 요람이 될 부지 마련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일은 1948년 1월 초에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는 대학부지 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것이다.

4) 신학교의 재건

해방 후 교회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

[1]손인수, 689.

[2]삼육간호보건대학의 역사는 삼육간호보건대학 요람(2000)의 연역편을 참고하라.

과제가 바로 신학교 재건 사업이었다. 와츠 목사의 보고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해방 후 재림교회는 교회를 지도할 많은 전문사역자들을 필요로 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재개가 급선무였다. 따라서 대총회로부터 합회장 명령을 받고 귀국한 와츠 목사는 첫 번째 평의원회(1947년 1월 27-30일)에서 조선합회신학교 개교를 우선 과제로 제안하고 신학교 운영을 책임질 운영진 및 교사들을 선정한 후 학생 정원과 개강일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선교사들의 내한" 편에서 이미 언급한 임원진들 외에도 학생자격, 모집인원, 개강일 등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1] ① 교장: 와츠, ② 교감: 이여식, ③ 교원: 제임스 리, 박창욱, ④ 학생자격: 중학졸업 정도로 하고 경우에 따라 특과를 두기로 함, ⑤ 모집인원: 남녀 20명, ⑥ 개강: 4월.

그러나 신학교 개교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보다 5개월 뒤인 9월 1일에 초·중등학교와 함께 합동 개교식을 거행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다. 1942년 5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사역자양성소가 폐교된 이후 5년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첫 개교 당시 학생수는 총 42명이었고, 수업은 회기동 본부교회 동편 날개방에서 하였으며, 남 기숙사와 여기숙사는 각각 중한대회 사무실 동편과 길 건너편 시조사 옆에 있었다. 등록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료생으로부터 전문학교 1, 2학년 수료생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학문 이행 능력의 편차가 많았다. 개교 당시 교재로는 사역자양성소 시절과 통신신학 시기에 사용하던 교재를 그대로 등사하여 재판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이 개교 첫 학기에 공부한 내용은 다음의 수업시간표에 잘 나타나 있다.[2]

[표 21] 신학교 시간표(1947~1948년 1학기)

<table>
<tr><th>시간 / 요일</th><th>월</th><th>화</th><th>수</th><th>목</th><th>금</th></tr>
<tr><td>1(08:00~08:30)</td><td>Chapel</td><td>Chapel</td><td>Chapel</td><td>Chapel</td><td>Chapel</td></tr>
<tr><td>2(08:35~09;25)</td><td>교리</td><td rowspan="2">다니엘
계시록</td><td>교리</td><td rowspan="2">다니엘
계시록</td><td>교리</td></tr>
<tr><td rowspan="2">3(09:30~10:20)</td><td>구약사기
Heb. Hist.</td><td rowspan="2">구약사기
Heb. Hist.</td><td rowspan="2">교육</td></tr>
<tr><td rowspan="2">4(10:25~11:15)</td><td rowspan="2">본교회사
Den. Hist.</td><td rowspan="2">영어 II</td><td rowspan="2">영어 II</td></tr>
<tr><td>교육</td><td>본교회사
Den. Hist.</td></tr>
<tr><td>5(11:20~12:10)</td><td>영어 I</td><td>음악</td><td>영어 I</td><td>음악</td><td>영어 I</td></tr>
</table>

(교사 및 과목수: 제임스 리 6, 그레이스 리 3, 박창욱 2, 이여식 9)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08:00~08:30)	Chapel	Chapel	Chapel	Chapel	Chapel

[1]교회지남, 1947년 3, 4월호, 16.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84.

2(08:35~09;25)	교리	다니엘 계시록	교리	다니엘 계시록	교리
3(09:30~10:20)	구약사기 Heb. Hist.		구약사기 Heb. Hist.		교육
4(10:25~11:15)	본교회사 Den. Hist.	영어 II	교육	영어 II	본교회사 Den. Hist.
5(11:20~12:10)	영어 I	영어 I	음악	영어 I	음악

(교사 및 과목수: 제임스 리 3, 그레이스 리 6, 박창욱 2, 이여식 9)

이렇게 신학교는 교육사업 재건의 절대적인 필요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대가 합쳐져 의욕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방으로부터 미군정청의 협조 아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1948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1] 나라의 형편이 이렇고 보니 한국 재림교회의 형편 역시 매우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당시 교회의 형편은 1948년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본부교회에서 개최된 제15회 합회 총회에서 보고된 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와츠 목사에 의해 보고된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는 전도사와 목사 16명을 포함해서 총 97명이었으며, 집회소 188개에 교인수는 1,992명, 안식일학교 학생수는 4,794명이었다. 교회의 재정상태를 가늠하게 해주는 십일조는 1,515,614원 정도였다.[2] 이 수치들 중 십일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회가 일제의 핍박으로 인해 해산되기 전인 1940년도의 수준에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교회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재개한 신학교 교육은 개교 1년 만에 다시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8년 5월에 휴교할 당시 신학교에 재적한 학생 수는 남학생 38명과 여학생 8명, 방청생 3명 등 총 49명이었다.[3] 1년간 진행하던 공부를 잠시 접어야 하는 상황이 재학생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교회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휴교 상태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재림교회의 재건을 위해 원동지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원금을 결의해 주었다. 우선 1947년에 부지 매입을 위해 2만 5천 달러를 결의해 주었다.

---

[1]미군정의 지도 하에 남한 지역은 1948년 5월 10일 민주방식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이 국회에 의해 7월 17일 역사적인 새 헌법을 공포한 다음,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정부를 조직한 후 해방을 맞이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2]교회지남, 1948년 7월호, 16.

[3]휴교 당시 재적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 강원강, 고치직, 곽경팔, 김관호, 김근웅, 김기태, 김석만, 김성래, 김승제, 김준팔, 김진옥, 김창주, 김학순, 류영구, 류재목, 명청준, 박준호, 박찬일, 박춘섭, 박충권, 방근억, 서상철, 송효식, 신정석, 신태식, 오춘수, 우영택, 유인상, 은인동, 이기웅, 이영린, 이천득, 임종덕, 장한식, 지대성, 최승만, 최희만, 홍성원(이상 38명). 여학생: 강은선, 권명순, 김수련, 김유순, 박겸숙, 오봉순, 우영숙, 조광숙(이상 8명). 방청생: 송권, 김원의, 조옥순(이상 3명).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83.

1948년에는 교회 예배당 신축 자금으로 4백만 원, 그리고 학교 건립을 위해 다시 2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결의해 보내주었다.[1] 한편 새학교 부지 매입 및 건축을 위해서 1949년에도 2만5천 달러의 지원금이 결의되어, 대총회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한국교육사업을 위해서 매년 2만5천 달러를 지원해 주었다.[2] 여기에 제15회 합회 총회 마지막 날 안식일에 있었던 교회재건헌금 호소에서 명석원 선생이 교육사업을 위해 50만원의 헌금을 드렸다.[3] 이런 자금들은 교육사업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교가 다시 휴교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교육 지도자들은 대총회의 지원에 힘입어 교육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학교부지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교부지 매입을 완료하기 한 달 전인 1949년 10월 18일에 우선 회기동에서 제임스 리 목사가 교장이 되어 신학교를 다시 개교하였다. 이는 곧바로 정착할 새로운 학교부지로 신학교를 옮기기 위한 선행 과정이었다. 바야흐로 삼육교육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

[1]교회지남, 1948년 7월호, 32.

[2]교회지남, 1949년 4월호, 16; 5월호, 14, 15. 1950년에도 1만 달러가 또 지원되었다.

[3]교회지남, 1948년 7월호, 31; V. T. Amstrong, "Korean Union Session," *Review and Herald*, August 12, 1948, 24.

제6장 삼육동 시대 개척
(1948~1949)

삼육동[1] 시대의 개척은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재림교회의 기별이 전해지던 때인 구한말 한국의 상황이 그렇듯이 해방 후 교회를 재건하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신속한 교회재건 사업으로 인해 교회가 빠르게 회복되어 갔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 한국 재림교인 수는 2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사업의 비전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재림교회는 전 세계 재림교회 조직인 대총회의 지원 아래 대단히 원대한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개교 100주년을 넘어선 오늘의 삼육대학교의 꿈은 바로 그러한 지원과 더불어 실현된 것이다.

대총회의 한국 교육사업 지원은 재림교회 사업의 발전을 넘어서 이 땅에 진정한 근대교육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게 함이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재림교회 대학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교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면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 특별히 이 시기에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수준 높은 전문 신학교육을 지향하였다. 미국에 세워진 신학대학원은 기존의 재림교회 교육 환경을 뛰어넘어 일반 개신교 신학대학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2] 재림교회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사업을 지향했던 이유는 교육을 통해 재림교회 사업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고유한 교육이념을 구현하면서 학문의 수월성을 함께 추구하고자 함이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한국 재림교회의 고등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 해방과 더불어 다시 내한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기왕에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교육비전을 실현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의식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되는 삼육교육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와 같은 문명선교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라는 단순한 과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조망하는 수준에서 교육사업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특별히 선교사들은 미국의 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던 학문 중심의 대학교육을 한국 내에서도 실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런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해방 후 삼

---

[1]삼육동은 삼육대학교가 세워진 서울시 공릉2동 26-21번지 일대를 말한다. 이곳에 삼육대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이 설립되어 삼육교육이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동문들은 이곳을 삼육동이라고 명명하였다. 행정구역상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지만 삼육대학교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삼육동은 중요한 삼육교육의 요람이 된다.

[2]Schwarz & Greenleaf, 392.

육교육을 전혀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었다. 삼육교육의 주체들은 안정된 기반 아래 학문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국내외의 지원을 호소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학교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과 노력에 따라서 삼육교육의 중심을 이끈 삼육동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 교회의 협력은 매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한국에 세워진 삼육대학교는 전 세계 재림교회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전 세계 교회들의 협력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삼육동 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먼저 그 모든 헌신과 협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대학부지 구입(1948)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부지마련 계획은 과거 초창기 선교사들이 순안에 부지를 얻어 학교를 세운 것과 유사한 역사적 과업이었다. 순안에 부지를 얻어 근대식 학교를 지어 시작된 삼육교육은 서울로 옮긴 이후 면목리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경성삼육원을 세워 중등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방 후 면목리의 경성삼육원을 삼육중학교로 운영하였으나, 초등학교와 신학교는 여전히 본부교회 날개방에서 열악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 모든 교육 기관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학교부지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였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후 대총회는 선교사 철수 이전에 합회장이었던 와츠 목사를 다시 조선합회 합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이에 한국으로 귀환한 와츠 목사는 공식적인 첫 번째 평의원회에서 신학교의 개교를 우선적 과제 중의 하나로 결의하였다. 이는 첫 선교사 스미스 목사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명학교를 세웠던 것과 동일한 의식의 발로였다. 와츠 목사 역시 한국사업의 재개를 위해서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서둘러 신학교를 개교하고자했던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와츠 목사는 제대로 된 학교 설립을 염두에 두고 조선합회신학교 건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조처를 진행하였다. 우선 이 문제를 대총회에 상신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원동지회 평의원회는 한국교육사업을 위해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만5천 달러 씩의 허급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지 구입 및 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세워지게 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들

은 제임스 리 목사와 이여식 목사였다.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던 1947년 이여식 목사는 새롭게 개교한 조선합회신학교 교감을 맡고 있었으며, 제임스 리 목사는 교사로 수고하였다.[1] 이 두 사람은 교육사업이 재건되어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1947년 가을부터 교육 비전을 실현시킬 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 서울 근교 일대를 답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제임스 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토지매각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 해 11월 초순의 어느 날, 당시 미군정청의 고문으로 일하던 와츠 목사는 구황실(舊皇室)의 일가(一家) 되는 분을 초대해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마침 신학교 교사였던 제임스 리 목사도 함께 배석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중에 손님은 구황실에서 꽤 큰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려고 하는데 재림교단에서 사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와츠 목사는 그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배석했던 제임스 리 목사에게 구황실의 땅들 가운데 학교부지로 적합한 곳이 있는지 답사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임스 리 목사는 이여식 목사 및 미첼(K. L. Mitchell, 민제일) 선교사와 더불어 구황실의 땅이 있던 태릉(泰陵)을 답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릉과 그 주변 지역은 장소가 협소하여 학교 부지로는 적합한 곳이 없었다. 이들은 되돌아오는 길에 평소 구면이던 갈매리 사람 엄씨룡(安氏龍)씨[2]를 만나 태릉을 지나 강릉(康陵)이 있는 지역 주변에 대학부지로 적합한 땅을 소개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 삼육대학교의 부지가 될 땅을 만나게 되었다. 김재신 목사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기록하였다.

> 엄씨의 안내로 강릉을 왼편으로 끼고 송림이 잔잔한 곳을 두루 살피고 지금의 오얏봉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러 제임스 리 교장과 이여식 선생은 엄씨가 가리키는 대로 사면을 둘러보니 천보산(天寶山) 기슭 자연의 아름다움에 '야아 바로 이곳이다!'라고 감탄을 발하게 되었다. 제임스 리 교장과 이여식 선생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날이 바로 1947년 11월 18일이었다. 이 땅을 삼육교육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장(秘藏)해 두셨던 것을 찾게 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다."[3]

이 날은 삼육대학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다.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한 지 두 달여 만에 지도자들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진 대학부

---

[1]제임스 리 목사는 1948년에 신학교 교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여식 목사는 청소년부장을 거쳐 1952년 총회에서 교육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런 직위로 인해 이 두 사람이 학교부지 매입에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교회지남, 1948년 7월호, 22; 1952년 7월호, 51-53.

[2]재림교회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안씨룡으로 소개되었는데 삼육대학교90년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김재신 목사가 그 후손들을 만나 엄씨룡씨임을 확인하여 수정되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147, 1148.

[3]상게서, 185.

지를 발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날이기 때문이다.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다음날 합회 행정위원들이 제임스 리 목사의 안내로 현지를 답사한 후 대학부지로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제임스 리 목사와 이여식 목사는 즉시 구황실 사무청과 교섭하여 오얏봉 일대를 재림교단이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실로 전광석화와도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부지 매입을 결정한 후 지도자들은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시 위생병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이주복 장로에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이주복 장로는 위생병원에서 텐트 2개를 차에 싣고 11월 25일 가족과 함께 오얏봉 앞에 텐트를 치고 관리를 시작하였다. 한편 합회에서는 11월 26일에 열린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구황실과의 교섭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1] 당시 이 부지는 서울골프클럽에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학교와 같은 육영사업을 위해 매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문교부와 구황실 재산관리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삼육대학교 부지로 팔도록 지도되었다.

아울러 이듬해인 1948년 1월 하순에 합회장 와츠 목사와 회계 밀스, 그리고 삼육중학교장 제임스 리 등 3명의 지도자들은 원동지회 평의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에 일본에 들러 엘드리지(P. H. Eldridge) 목사의 소개로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씨를 예방하고 구황실의 소유 강릉 근처의 땅에 삼육대학을 건설할 뜻을 밝히고 긍정적인 답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지도자들은 구황실 사무청[李王職]과 부지 구입을 추진하여 드디어 1948년 7월에 강릉 일대 70정보(21만 평)의 임야를 미화 7,000 달러에 매입하였다.[2]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2. 학교 건설(1948~1949)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 재림교회가 대총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8만 5천 달러에 이르렀다.[3] 이 자금으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지 위에 본격적으로 학교 시설들을 건축하였다. 우선은 학교 진입로를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학교 건축을 책임 맡은 미첼이 미군이 사용하던 불도저를 빌려 직접 육사 입구(화랑역)에서 학교까지 길을 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이 길을 미첼 로드

---

[1]상게서, 185.

[2]교회지남, 1948년 1월호, 16. 이 부지는 등기상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223번지였으며, 등기상으로는 임야 63정보 6.2단보(약 19만평)로 등재되어 있다. 박채운, 삼육대학교 건축사개관(서울: 삼육대학교, 1997), 27.

[3]1947년에 2만 5천 달러, 1948년에 2만 5천 달러, 1949년에 2만 5천 달러, 1950년에 1만 달러 등 총 8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Mitchell Road)라고 부르기도 했다.[1]

학교 부지 위에 최초로 세워진 건물들은 실업관(공장), 사택, 종합교사 등이었다. 이 건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것은 실업관이었다. 1948년 8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백토에 백회를 섞어서 자작 흙벽돌을 만들어진 흙 블럭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건물이었으며, 목공장, 철공장 등 기술노작 교육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 건축 당시 건물의 규모는 288.80평으로, 평당 28,000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다.[2] 최초로 지어진 이 건물은 초창기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 같다. 초기 삼육대학의 교수로 활동했던 임정혁 교수는 이렇게 회상했다. "밤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실업부 목공실 한쪽을 치우고 거기 한쪽에 남포등들을 가져다가 나란히 걸어 놓고 예배를 드리곤 했다. 예배당 의자는 벽돌을 고인 널판지들이었다. 이곳은 교실, 예배당, 강당은 물론 사교장 역할까지 겸한 다목적실이었다."[3] 이 건물은 1999년 제1실습실이 지어지기 전까지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왔다.[4]

실업관에 이어 교직원 사택과 선교사 사택이 세워졌다. 교직원들을 위한 사택은 1~10호까지 총 10채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지어졌다. 약 17평 규모의 단층 목조 와즙으로 지어진 이 사택의 첫 입주자들은 김성수(1호, 실업부 책임자), 정택혁(2호, 재무), 조돈하(3호, 국어), 이응준(4호, 성경교사 겸 남사감), 김영도(5호, 화학), 임병의(6호, 총무), 이여식(7호, 신학교), 최명환(8호, 수학), 김기방(9호, 미술), 손재목(10호, 실업부 부책임자) 등이었다.[5] 선교사 사택은 1~3호까지 모두 목조 시멘트 와즙 2층으로 지어졌으며, 규모는 1층 36평, 2층 27평(계 63평)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택의 첫 주인들은 신학교장인 제임스 리 목사와 실업부장인 미첼 선교사 등이었다. 직원 사택과 선교사 사택은 1948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건축비는 직원 사택이 평당 34,000원, 선교사 사택은 평당 45,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당시 이 사택 건물들은 모범적인 가옥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을 위한 교사가 제일 처음 세워진 것은 1949년이었다. 당시에 새로 마련된 대학 부지에서는 면목리에서 이주해 온 삼육중학교 학생들 약 300여명과 소수의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종합교육관은 전면의 길이가 약 40m, 측변의 길이가 약 30m 정도 되는 건물로 약 240여 평 규모로 지어졌다. 건축

---

[1]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86.
[2]박채운, 34-36.
[3]임정혁, "삼육동시절을 회고함," 삼육동 이야기, 송숙자 편(서울: 삼육대학교, 1996), 47.
[4]삼육학보, 1999년 9월 1일자, 7.
[5]박채운, 36.
[6]상게서, 36-39.

재료는 자작, 백석흙벽돌, 기와지붕의 집이었는데 특별히 저수지 입구에 있는 돌을 많이 이용하여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일명 돌집으로도 불렸다. 건물의 구조는 ㅌ자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앙에 강당이 있고, 양 옆으로는 복도가 있으며, 오른쪽은 중학교 교실, 왼쪽은 신학교 교실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식당과 일반 사무실, 왼쪽 날개는 재무실과 사무실이 있었다. 한 편 지붕 밑 천정을 다락방 형태로 꾸며서 오른편은 남자 기숙사, 왼편은 여자 기숙사로 사용하였다.[1] 다락방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명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처음엔 다소 불편한 형태였지만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시설이었다. 기숙사에는 나무로 만든 개인 침대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초창기 학교 건물들의 건축은 미첼 선교사의 설계와 도편수 안영포, 목수 정기산 및 조유례, 박수산 등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모든 건축을 현장에서 감독한 이는 목장과 삼육우유 사업의 초기 공로자인 이주복 장로였다. 이들 중 미첼 선교사는 1947년 4월 15일에 루 의사와 함께 내한하여 해방 후 한국 교회 재건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는데, 인척관계로는 루 의사의 사위였다. 내한하자마자 제임스 리 목사와 함께 대학부지를 물색하였고, 부지가 확보되자 미군의 불도저를 빌려 길을 닦고, 학교 건물들의 설계들을 직접 담당해 초창기의 모든 건물들을 지었다. 이후 미첼은 실업부장을 역임해 실업부의 책임자로 수고하였다.[2]

새 학교부지에 여러 교육시설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한 것은 1949년 11월이었다. 당시 학교 캠퍼스의 전경은 삼육대학교의 초기 동문들의 의식 속에 애틋한 추억과 커다란 자긍심으로 남아 있다. 김재신 목사가 전하는 그 시절의 캠퍼스 모습은 이랬다.

> 당시의 캠퍼스는 학교 건물이 위치한 곳을 중앙 본부로 해서, 동편은 공장이 실업부의 중심이 되어 농장과 양계장, 과수원이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서편은 지금의 유치원 앞 강릉 쪽 길가에 목장이 있어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으며, 공터에는 미군부대에서 실어온 철물 골재와 파이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동명사 앞 강당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테니스장 하던 공터가 교회당 건축부지로 닦아 놓은 곳이 있었다.[3]

3. 학교 이전 및 개교(1949)

---

[1]박채운, 39, 40.
[2]송숙자, "사랑의 선교사들," 삼육동 이야기, 180, 181.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87.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중심이 회기동에서 삼육동(공릉동 현 부지)으로 옮긴 시점은 1949년 11월 13일이었다.[1] 이 날 회기동에 있던 조선합회신학교와 면목리에 있던 삼육중학교가 새로 자리를 잡은 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첫 개교를 하게 되었다. 물론 부속 국민학교도 개교를 하여 삼육동은 명실 공히 초·중·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교육센터가 된 것이다.

신학교의 경우 1947년 9월에 다시 문을 열고 수업을 시작했다가 채 1년도 못된 시점인 1948년 5월에 다시 휴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당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휴교를 하게 되었지만 재림교회는 이미 새로운 학교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교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실제로 교회는 대학부지를 매입하고 학교 건물을 지은 후 1년 만에 신학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학교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우선 1949년 10월 18일에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개교식을 거행한 후 본격적인 학교 이전 및 수업 개시를 준비하였다. 이 개교식에서는 신학교의 개교와 삼육중학교의 이전을 함께 축하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개교식이 마친 후 11월 13일에 학교를 이전하고 첫 수업을 시작함으로써 삼육동 교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신학교는 본과, 특과, 방청과로 운영하였다. 중학교 4학년 이상 수료자는 본과, 중학교 3년 이하 수료자는 특과, 그리고 그 이하는 방청생으로 구분한 것이었다.[2] 당시 학교 명칭은 '삼육초급대학'으로 명명되었다. 이는 중학교 과정과 신학교 과정을 묶어서 운영한 편제였는데 중학교 1-4학년까지를 중학과정으로, 5학년은 신학교 1년, 6학년은 신학교 2년으로 한 것이다.[3] 이런 명칭과 학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1949년 당시 국가적으로 교육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혼란기에 한국의 교육정책은 미군정청 학무국이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결의에 따라 수립되었음은 이미 밝힌 것과 같다. 이때의 학제는 미국식의 6-3-3-4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교육기간이 이 체제 아래서 완전히 정착된 것은 건국 이후인 1950년 3월 10일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문교부는 복잡했던 학제를 민주적인 단선형으로 수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상정했는데 이 학제개정안이 1950년 2월 10일에 통과되고, 같은 해 3월 10일 공포됨으로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가 완전히 수립되었다. 이 때 초급대학 4년제가 삭제되었다.[4] 삼육교육 기관들이 삼육동에 둥지

---

[1]교회지남, 1949년 12월호, 64.
[2]교회지남, 1949년 10월호, 16.
[3]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88.
[4]손인수, 697.

를 틀고 교육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이 학제가 완전 정착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나중에 없어진 초급대학 4년제를 교육과정으로 하여 학교명을 '삼육초급대학'으로 명명하고 중학과정 4년 후 신학교 과정 2년을 추가하여 총 6년간의 교육사업을 통합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중학 과정이 4년이 된 이유는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 기본법에서 중학교 과정을 4년으로 했기 때문이었다.[1] 이런 학제의 혼돈은 1950년에 학제개정안의 통과 이후에 조정되어 오늘날과 같은 학제로 최종 정착될 것이었다. 이로써 잠시 동안 삼육초급대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학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고 중학교 과정이 포함된 초급대학 4년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이다.

4. 학교의 이모저모

당시 학교는 서울 도심에서는 물론이고, 재림교회 본부가 있던 회기동에서조차 동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 그러나 학교 캠퍼스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내고 여러 시설들 및 농장들을 설치하면서 캠퍼스 내의 모습은 매우 풍요로웠다. 특별히 학교 공장에서 자가 발전한 전기를 사용함으로 캠퍼스는 광명촌을 이루었고, 식수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시원한 생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공장과 농장, 목장 등을 운영함으로 그야 말로 근대화의 실험실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장으로써 삼육동은 이 나라의 미래 역군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었다. 이 준비된 캠퍼스에서 삼육교육의 비전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1) 교직원

종합 교육센터로서 삼육동의 교육이 시작될 때 교육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교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교장: 제임스 리(총무 겸임)

부교장: 이여식, 재무: 임병의, 실업부: 미첼, 손재목, 실업부 재무: 정태혁

남사감: 이응준(성경), 여사감: 문미옥

---

[1]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법률 제86호에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1-3년(중학교 3년 수료 후 입학), 대학 4년 내지 6년(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초급대학 4년(중학교 졸업 후 입학), 초급대학 2년(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사범학교 3년(중학교 졸업 후 입학), 사범대학 2년 또는 4년(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의 학제를 채택하였다. 손인수, 696.

신학교 교수: 제임스 리, 이여식

중학교 교사: 김기방(미술), 김영도(농업, 화학), 손경수(가정), 안현우(영어), 김기춘(영어), 정규화(군사훈련), 최명환(수학), 이창규(교무, 역사), 이용준(수학), 김병재(음악), 한영옥(가정), 김창수(성경), 노원호(국교), 최준영(수학, 국교).

일반직원: 김성수(공장), 이주복(목장), 지이준(농장), 김동인(운전), 박수산(영선), 이기원(목공), 권오성(잡역).

삼육동에서 교육 업을 시작할 당시 첫 번째 교장을 역임한 제임스 리 목사는 삼육대학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친 하워드 리 목사가 한국 선교사로 내한하여 의명학교 교장으로 수고하던 1912년 9월에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이다. 제임스 리 교장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개인교수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국 상해에 있던 삼육중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에서 목회학을 공부한 후 1938년 아버지를 뒤이어 한국 선교사로 내한하였다.[1] 일제의 압력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는 클린턴 리 목사, 와츠 목사와 더불어 필리핀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포로가 되어 고생을 하기도 했다. 해방 후 귀환한 제임스 리 목사는 삼육중학교 교장 및 신학교 교수의 역임을 맡고 새로운 교육부지를 물색하여 결국 현재의 삼육동이 있게 한 핵심 인물이 되었다. 제임스 리 목사는 삼육동에 세워진 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교육의 기틀을 놓았으며, 한국전쟁 이후 삼육교육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그리고 1954년부터는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마운틴 뷰 대학에 4년제 신학과를 신설하는데 이바지하는 등 아시아의 교육사업을 위해 크게 헌신하였다.[2] 제임스 리 교장이 한국을 떠난 후 그의 동생인 도널드 리(Donald Lee, 李旦悅)가 삼육신학원장으로 부임하여 6년 동안 교육자로 일했다. 이처럼 제임스 리 목사의 가족이 한국 교회와 대학 발전에 바친 열정과 애정은 삼육대학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만한 것이었다. 삼육대학교는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호수의 이름을 그의 한국명을 따서 제명호(濟明湖)로 명명하였으며, 이여식 목사와 함께 올랐던 기도의 동산도 오얏봉으로 명명하였다.[3]

2) 기숙사 생활

남녀 기숙사가 건축되는 해는 1955년이었기 때문에 삼육동의 초창기 기숙사 형편은 열악했다. 초기에 기숙사는 종합교사의 지붕 밑 2층 다락방을 임시로 사용하였다. 방의 길이는 70~80m였고 너비는 2m였는데 남자와 여자 기숙사를 구분해야 했기 때

---

[1]*Review and Herald*, October 13, 1938, 24.

[2]송숙자, "사랑의 선교사들," 삼육동 이야기, 178-180.

[3]제임스 리 목사의 한국 이름이 이제명이었다. 이여식 목사와 더불어 이씨 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 의해 대학 부지가 마련되었음을 기념해서 성의 뜻인 오얏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문에 공간의 가운데를 막아서 남쪽은 여학생들이, 북쪽은 남학생들이 사용하였다. 기숙사로 드나드는 입구는 남녀방 각각 한 개씩만 있어서 드나들기가 불편했다. 특별히 급수시설과 화장실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세면과 용변 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몇몇 분의 회고록에 나타나고 있다.[1]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부분 불평 없이 학교생활에 충실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학교시설을 갖춰놓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행운이자 특권이었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화목하게 지냈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업과 신앙에 열정을 바치고 기숙사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저들에게는 중요한 교육의 기회였다. 초기 남기숙사의 사감은 이응준 선생이었고, 여사감은 문미옥 선생이었다.

3) 학생활동

의명학교 학생들이 그랬듯이 삼육동의 학생들도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별히 초창기 활동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활동은 안식일학교와 의용선교회(Missionary Volunteers, 약어로 MV)) 등과 같은 신앙활동이었다. 이 신앙활동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학생들은 주로 교장, 회장, 부장 등을 맡았고, 중학생들은 부교장, 부회장, 부부장 등을 맡아서 협력했다. 안식일학교와 의용선교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했던 활동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및 계몽활동들이었다.

삼육동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는 담터, 갈매리, 삼안리, 사로리, 서남쪽으로는 태릉, 공덕리, 먹골, 북쪽으로는 불암동 등의 자연 부락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이 지역들로 흩어져 선교활동과 계몽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별히 분교란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회 문화 프로그램들을 매주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종교 활동 이외에도 중학교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밴드부 등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특별히 밴드부는 양주군 공·사립학교의 대표가 되어서 중학교 학도호국단 행사가 있을 때면 행진곡 연주를 하기도 했다. 삼육중학교 밴드부의 활동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1950년 5월 3일 저녁에 강릉 야외에서 연주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 때 관중이 무려 1,500여 명이나 참석하였다고 한다.[2] 당시에 밴드부는 음악교사였던 김병재 선생이 지도하였으며, 학도호국단은 정규화 선생이 지도하였다. 밴드부 활동이 활성화 된

---

[1]김영도 선생은 회고담에서 "어떤 학부형은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김영도, "회고담," 삼육동 이야기, 34.

[2]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90.

것은 삼육중학교가 음악 활동을 강조했음을 알게 해주는데 이 모습은 과거 의명학교의 활동에서도 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 외에도 당시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일과 시간에 했던 활동은 역시 노동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삼육교육 특유의 노작교육 프로그램이 이곳 삼육동에서도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이는 이미 언급했던 삼육교육 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당시 삼육동에서 학생들이 주로 했던 노동은 "학교 농장과 학교 청소, 그리고 야경 등이 있었고, 여학생들은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1] 학교 농장에서는 주로 채소를 재배하였고, 목장에서는 우유를 생산했는데 이때 삼육동에서 나온 채소와 우유 등은 청정 제품으로 알려졌다. 초창기 삼육동 캠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실업부 공장 앞에 넓게 자리잡은 농장이었다. 이 농장에서 학생들은 열심히 노동을 하여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의명학교에서 그랬듯이 삼육동에서도 재림교회 교육 주체들은 근대주의적 실용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고 삼육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활동 등 일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삼육동 캠퍼스는 삼육교육이 순안을 떠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구축한 이상적인 삼육교육의 장이 되었다.

4) 교통편

삼육동은 그 위치상 교직원과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교가 시작될 당시의 학생수는 약 300여 명 정도 되었다. 이들 중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지역 학생들은 통학을 해야 했는데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걸어서 다녔고, 더러는 자전거로 통학을 했다. 먼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엔 기차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철도국과 교섭을 해서 학교 정문에서 가까운 화랑역과 갈매역 사이에 간이역을 만들어 출근과 퇴근, 통학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5) 제1회 졸업식 거행(1950)

삼육교육이 재림교회 교육의 중심인 삼육동에 정착한 후 첫 번째 졸업식이 1950년 5월 24일에 강릉 노천에서 거행되었다.[2] 이 졸업식에는 여학생 3명이 포함된 총 13명의 졸업생이 까만 가운과 모자를 쓰고 삼육초급대학이란 이름으로 졸업을 하였다. 해방 후 제1회 졸업식이었고 신학으로는 제12회 졸업식이었다. 이 졸업식에서 영예의

---

[1]유형환, "삼육동과 나," 삼육동 이야기, 21.
[2]교회지남, 1950년 5월호, 16.

졸업생이 된 13명은 해방 후 재개된 조선합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수업하고 휴교하였다가 다시 개교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었다. 이때 졸업한 학생들은 김석만, 김성래, 박찬일, 방근억, 오춘수, 은인동, 이기웅, 장한식, 최승만, 최희만, 김수련, 박겸숙, 오봉순이었는데, 이들은 졸업 후 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졸업한 지 한 달 만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당분간 학교의 운영도 쉽지 않아서 삼육교육은 다시 시련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련의 터널이 일제시대처럼 길지는 않았다. 전란 중에 겪게 된 짧은 시련의 터널을 지나온 후 삼육교육은 삼육동에 정착한 직후에 가졌던 웅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시기에 삼육교육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